



K-산업
유연한 글로벌 대응책 필요
06



Economy

→ 코스피	→ 코스닥
2399.49 (0.00)	678.19 (0.00)
↓ 금리 (미국 기준)	↑ 환율 (원/달러)
2.596 (-0.001)	1472.30 (+4.80) (12.31)

정국 혼란에 참사까지... 회복·치유 절실한 대한민국

2025 신년기획 격동의 한국 ▶ 생존 넘어 도약

트럼프2기 이어 계엄·탄핵 여파
올해 성장률 전망 1%대 줄이어
현재 결론 주목, 조기 대선 가능성
환율 급등에 제2 외환위기 우려도

나라의 지난 한 달이 극도로 어지러웠다. 그 사이 어김없이 새해는 찾아왔다. 12·3 사태 이후 풀어 내야만 하는 실타레가 마구 엉켜 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정치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불확실성이 에워싼 경제·외교 등을 정상화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았다. 그래도 국민들은 천만다행이었다고 새삼 느낀다. 희대의 계엄조치가 성공했다면 섬뜩한 연말과 새해를 살아야 했다.

〈신년호 기획기사 3·4·6·8면〉

올해는 8년 전과 판박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하고 대선을 치르는 가정이다. 상반기 내에 새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다. 2017년 1월 미국 새 행정부가 출범할 당시에도 한국은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였다. 그때도 이번에도 상대는 도널드 트럼프다. 만에 하나 탄핵소추가 불인용(기각)될 시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와 마주할 기회를 갖는다.

이미 우리 경제엔 지난해 11월 초 트럼프 후보의 당선 직후부터 불확실성이 반영되기 시작했다. 원·달러 환율이 오름세를 뒀고 주식시장은 약세를 면치 못했다. 그는 동맹국에도 관세를 더 매기겠다고 했다. 대미수출 비중이 상당한 우리 기업엔 경쟁에서 살아남을 묘수와 차선책 등이 절실하다. 이처럼 무역전쟁이 예고돼 있는데 외교적 해법 제시에 나설 지휘부가 공석이다.

2024년의 마지막 주말 여객기 참사까지 터졌다. 앞친 데 뒷친 격이고 실의

와 절망이 가중됐다. 국가적 혼란 속에서 이 역시 제대로 수습하고 유가족을 보듬어야 한다는 과제가 추가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당분간 민간 소비가 살아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2025년도는 1%대 경제성장률 전망이 대체로 자리잡는 모양새다. 이에 기획재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야 한다는 당위론이 힘을 받는다. 기재부를 비롯한 각 정부부처와 국회 간 긴밀한 소통·협약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천소라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달 24일 한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추경도 고려하고 있다’라는 의지를 좀 강력하게 표명해 주면 환율 등에 영향(원화 가치 하락세 방어)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수결손 위험을 감안해 추경의 집행 시기 및 운용방향 등에 대한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제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론도 곳곳에서 나온다. 일정 부분 설득력도 얻고 있다. 반면,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는 지적이 더 우세한 것도 사실이다. 최근의 환율 급등 탓에 제2 외환위기론 등 우려의 목소리가 속출하고 있다. 나라 경제가 그만큼 위급하다는 얘기다.

지난달 3일 자정을 넘긴 시각 여·야는 힘을 모아 계엄령을 무력화했다. 양극단을 달리는 정치이긴 하지만 일단 나라는 살리고 봐야 했던 것. 권한대행 등의 향후 거취는 투명하지 않다. 적어도 현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국회의 임무가 막중해 보인다.

밝아온 새해와 함께 나라는 중대 기로에 섰다. 현재 정치, 외교, 경제 나침반이 모조리 망가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주의 수가운데 ‘2017년 판박이’와 예기치 못한 길 등이 있다. 국민의 눈은 일단 현재와 수사당국에 쏠려 있다. 대다수는 바른 선택지가 뭔지 잘 안다. 전 세계인이 이미 지켜봤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떠오르는 희망찬 새해

2025년 을사년(乙巳年)을 맞아 강원 강릉시 영진해변에서 어민이 어망을 던지고 있다. 떠오르는 해를 향해 어망을 던지는 어민의 마음처럼 어려움을 이겨낸 국민들의 희망찬 새해를 기원해 본다. /손진영 기자 son@

소비촉진·추경 시급... 자본시장 안정화 과제

4분기GDP 증가율 매우 저조 예상 외환위기 우려 속 추경 논의 본격화

올해 정부는 민간소비 회복을 위한 방안을 짜내야 한다는 시급한 과제를 안았다. 지난해 지속된 소비 부진은 둔화한 경제성장률을 더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책 지휘부의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치권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자본시장에 대한 정상화 추진도 당면 과제다.

지난해 소비는 끝내 살아나지 않았

다. 12·3 사태는 연말 특수마저 자취를 감추게 만들었다. 4분기 민간소비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매우 저조할 것이란 예측이 터져 나온다.

GDP는 지난해 1분기 1.3%(직전분기 대비) 늘어나며 깜짝 성장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2분기(-0.2%)에 역성장했고 3분기(+0.1%) 들어서는 간신히 뒷걸음을 면했다. 수출이 2024년도에 역대 최대를 기록했음에도 민간소비 등의 내수가 뒷받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건설업 위축 역시 내수 진작에 큰 걸림돌이 됐다.

본예산의 집행도 개시하기 전부터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야는 지난해 말 국회 및 정부 참여 국정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협의체를 통한 추경이 가시화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의했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당 내부 논의를 우선 거치겠다고 화답했다.

〈3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SAMSUNG



미래로 함께 가는 2025년

모두가 꿈을 이루고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한해가 되길 희망합니다

삼성엔 다양한 CSR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와 동행하며 함께 희망을 키워갑니다

항공기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초유의 정치위기 극복 앞장… 국민 신뢰회복에 매진할 것”

국회의장·여야 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어려울 수록 국민 곁에서 일할 것”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려운 민생, 더 꼼꼼히 챙길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절망 늪 빠진 국민의 삶 함께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 신년사에서 “우리 국민에게 고단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그 고단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국회가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지도부가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을 참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광주시민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뉴스1

과 고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표는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 모두는 유례없는 아픔과 직면했다. 가족과 이웃을 잃은 슬픔, 내일의 희망을 잃은 슬픔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하지만 만 아픔이 깊을수록 빛을 그리는 마음이 간절하듯 새로운 나라를 향한 우리의 소망은 더욱 선명해졌다. 우리는 위기 속에 보여준 위대한 연대, 하나 된 국민의 의지로 다시 일어설 것”이라며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제주항공 참사를 언급하며 “묵은 한해의 어려움을 딛고 기쁨과 설렘이 가득해야 할 한 해의 시작이 온 국민의 슬픔과 애통함으로 가득 찼다”며 “항공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빈다. 형언하기 힘든 아픔을 겪고 계실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제 손을 잡고 울부짖던 유가족분들의 절규가 잊히지 않는다. 이번 참사가 완전히 수습되는 날까지 민주당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며 “절박한 국민의 곁에서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하겠다”고도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푸른 뱀의 해 2025년 을사년을 맞아 국회와 정당이 초유의 정치 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서겠다며 새해를 맞은 시민들에게 안부와 위로를 건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신년사에서 “어려모로 어려운 때다. 최선을 다해 위기를 극복해나가겠지만, 우리 국민에게는 고단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그 고단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국회가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 힘도, 정치가 할 일도 국민의 삶에서 온다고 믿는다”며 “어려울수록 국민의 곁에서, 혼란할수록 국민의 편에서 일하겠다. 더 열심히 뛰겠다”고 같이 말했다.

우 의원은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치열한 과정의 한 가운데 있다”며 “특별히 올해는 광복(光復) 80주년을 맞는 해다. 긴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독립의 의지를 잃지 않고 마침내 주권을 회복한 그날의 의미를 되새긴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어려운 민생을 더욱 꼼꼼히 챙기고, 국제정세에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우리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앞

장서겠다. 정부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면서 혼란스러운 국정을 안정시키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제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만큼 급변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계속된 정치적 혼란은 민생과 경제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며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작금의 상황에 대해 국민께 송구할 따름”이라며 사과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정치 복원”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지난해 마지막 날, 여

야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민생현안을 다룰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합의했다”며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우리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 당의 화합과 안정을 꾀하면서도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변화와 쇄신의 고삐를 더 단단히 조이겠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무거운 책임감으로 절망의 늪에 빠진 국민의 삶에 함께 하겠다”며 “우리 앞의 비극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윤진식 한국무연협회장



정은진 신세계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허서홍 GS리테일 신임 대표이사

“과감한 혁신 통해 미래성장 토대 다져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경제6단체장

희망·위기극복·통합 한목소리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고비 슬기롭게 극복한 저력 있어”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비상한 시기, 신발끈 묶고 돌파해야”

국내외 정치·경제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 6단체장들은 2025년 을사년을 맞아 1일 내놓은 신년사에서 희망, 위기극복, 통합을 어느때보다 절실하게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옛 것을 뜯어고치고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혁명정신’(革故鼎新)의 결단이 요구된다”면서 “과거의 성공에 머무르지 말고 과감한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을 위한 토대를 다져야 할 때”라고 독려했다.

그러면서 최태원 회장은 기업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한 장기 전략 수립·실행, 미래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재육성·투자 등 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주문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은 “대한민국이 또다시 성장과 침체의 갈림길에 섰다”면서 “하지만 우리 국민에게는 이보

다 더 어려운 고비도 슬기롭게 극복해 온 저력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전 국가적인 통합과 협력의 정신”이라고 전했다.

경제단체장들은 경제 주체의 하나로써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기업인에게 위기는 일상의 다른 이름일 것이다. 비상한 시기가 도래했다면 맞서 싸워 돌파할 수밖에 없다. 신발끈을 묶고 다시 나설 도리밖에 없다”며 맹자가 말한 ‘항산항심(恒産恒心)’을 인용했다.

대한민국 전체 기업의 99%, 근로자의 8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민생 문제도 새해에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우선 과제는 민생경제 회복”이라며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되는 만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제조업, 서비스업, 지방의 공장과 골목시장까지 찾아다니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답하겠다”고 전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대표되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점도 밝혔다.

김기문 회장은 “0.1%에 불과한 1만

여 개의 대기업이 전체 이익의 63%를 가져가는 대·중소기업간 과도한 격차가 지속된다면 한국경제의 지속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매년 40만명씩 줄어드는 현실에서 노동시장 개혁이 늦춰진다면 중소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 한국 경제는 더욱 공정해야 하고, 노동정책도 보다 유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 분야를 아우르는 경제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이끌고 있는 손경식 회장은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근로시간제도 유연성 확대와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경직된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사관계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점거 금지와 같은 노동 관련 법·제도의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수출도 2025년 화두 중 하나다.

윤진식 한국무연협회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무연환경을 점검하고 수출기업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장 밀착형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기업들, 신년사 미루거나 비공개 조용한 분위기로 ‘을사년’ 시작

유통업계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변화의 파고, 함께 맞서 나서자”

유통가가 예년과 다르게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연말과 연초에 신년사를 발표하던 유통업계가 올해는 신년사를 미루거나 비공개로 전환하며 조용한 신년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이다. 탄핵 정국과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사고로 인한 불안정한 시국을 감안한 결과로 풀이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몇몇 유통업체가 신년사를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발표를 미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그룹은 연말에 신년사를 발표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이번에는 올해 초 신년사를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GS리테일도 조용한 신년을 맞이했다. GS리테일은 올해 신임 대표이사인 허서홍 대표의 신년사를 비공개로 전환, 내부에만 알린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허연수 GS리테일 전 대표이사가 대외적으로 신년사를 공개한 것과 대조적

인 행보로, 올해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조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예정대로 신년사를 발표하는 곳도 있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변화의 파고를 함께 맞서 나가자”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을사년 신년사에서 “우리 그룹이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고객, 시장, 그리고 비즈니스 생태계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시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성장의 동인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규사업 추진에 대한 경영층의 역할도 언급했다. 정 회장은 “각사 대표이사 및 임원은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큰 책무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신속한 판단을 바탕으로 신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영층의 적극적인 리더십이 있어야 전략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멀게만 보였던 비전 목표를 현실에서 마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그룹과 CJ그룹도 2일 신동빈 회장, 손경식 회장의 신년사를 예정대로 발표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트럼프즘 탄핵정국 금리인하... 2%대 저성장 직면

거시경제 전망

韓, 수출 증가폭 줄고 내수회복 더더 정치적 불확실성에 정책·입법 제동 FTA 등 국내외 현안 대응력 높여야

2025년 세계 경제의 중심에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 벼랑 끝 전술, 일관성 없는 행동,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즘'(트럼프주의)은 전세계의 질서와 안정을 크게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암초로 작용할 개연성이 크다. 탄핵정국으로 얼어붙은 내수(소비·투자) 경기에 수출 부진은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얼마나 '수출 코리아'의 위상을 지켜낼 지가 올해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주요국, 금리 인하 가능성 ↑

새해 세계 경제는 디스인플레이션(물가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며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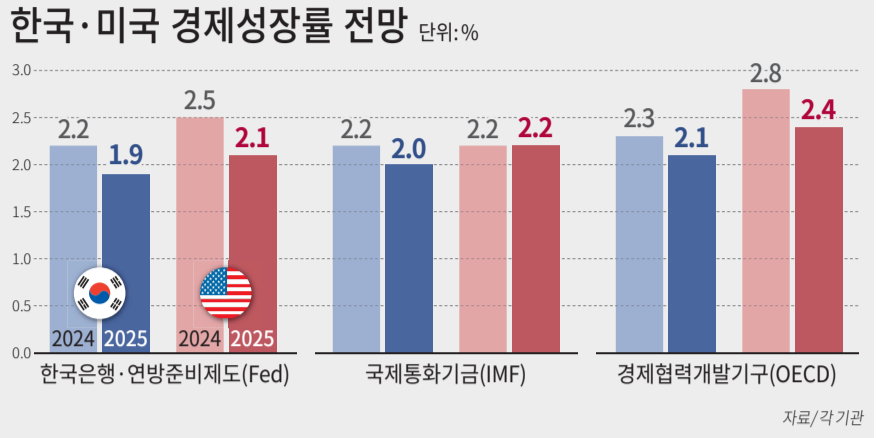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0월 미국의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이 1.9%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물가는 지난해 상반기 3%대에서 하반기 2%대로 떨어졌다. 금리를 인상한 효과가 시차를 두고 서서히 나타나는 만큼 올해는 2%대를 밑돌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로 2.0% ▲영국 2.1% ▲중국 1.7% ▲일본 2.0%로 예상했다.

물가가 안정세를 되찾으면 중앙은행은 올렸던 금리를 내린다.

올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기준금리를 25~50bp(1bp=0.01%포인트)인하할 전망이다. 현재 4.25~4.5%인 기준금리를 연말에는 3.75~4.00%까지 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도 매분기 25bp 금리를 인하해 올해 말 3.75%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됐다.

◆ 흔들리는 국제사회

다만 이 같은 상황은 트럼프 정부가 오기 전 이야기다. 오는 20일 트럼프가 취임하며 관세·이민정책을 시행하면 잠잠해진 물가와 고용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앞서 트럼프는 대선 당시 미국 국경을 통해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에는 60%, 멕시코산에는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관세를 부과하면 기업들은 늘어난 관세 비용을 수입품에 전가한다. 미국의 경우 자연스럽게 물가가 오르고, 그 외 국가들은 이에 보복하기 위해 관세를 올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민정책으로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면 기업들은 더 높은 임금으로 그 공석을 채워야 한다.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 고용을 위한 불법이민자 추방이 물가상승을 이끌어 수출과 내수(소비·투자)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리를 인하할 시기를 늦춰 경제 성장이 더뎠을 수 있다.

다행인 점은 트럼프가 내놓은 계획은 당장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2017~2021년 대통령 재임 당시 의회가 비상사태 또는 국가안보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이 조치할 수 있도록 위임한 광범위한 권한(행정명령)을 활용해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은 다르다.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은 법적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단독 관세 법안도 불가능하다. 공화당은 의회에서 매우 근소한 차이로 우위에 있지만 의원들 중에는 반무역의 제를 지지하지 않는 의원이 많다.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공약한 관세수준보다는 다소 완화된 형태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제이피모건체이스(JPM)는 각 국가에 10~20% 부과하는 보편관세는 시행하기 어렵고, 중국관세가 현 수준(약 11%)에서 50% 인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모건스탠리(MS)는 중국 관세가 25% 증가하고, 이외국가는 2~3%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불법이민자로 추정되는 약 830만명 또한 한 번에 추방하면 경제 충격이 커

질 수 있으므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 韓, 풍랑 대비해야

우리나라도 앞으로 나타날 풍랑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 증가폭이 줄어들고, 내수 회복이 더딘 상태다. 트럼프 정책이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성장을 위해선 내수를 빠르게 회복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심리 위축이 안 좋은 내수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여야가 추경과 같은 중요한 정책을 빠른 속도로 합의하는 것이 내수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으로 인한 정치 프로세스가 앞으로 몇 개월 가는 동안 경제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야 국민들도 마음을 놓고, 해외에서도 우리를 보는 믿음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한다"며 "추경과 같

은 중요한 정책을 빠른 속도로 합의하는 등 경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이 보편관세를 지렛대로 삼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할 시 우선순위를 정해 지킬 것은 지키는 전략도 필요하다.

주요 협상 분야로는 자동차와 농축산품이 있다. 반도체의 경우 미국의 생산력이 크지 않아 관세를 올려도 우리나라에서 구매해야 하지만, 자동차는 미국도 생산력이 있어 관세 인상이 가격 경쟁력 면에서 타격을 볼 수 있다.

FTA 재협상 시 미국이 자국 물건 구매를 요구할 경우 농산물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분야 관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농산물 시장의 경우 이상기온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 시장개방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가 FTA 협상 카드로 농산물 분야를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중장기 대안 나오나... 불확실성 해소 기대

》》 1면 '소비축진·추경 시급'서 계속

1분기 내 짜여질 것으로 예상되는 추경에는 여객기 참극에 따른 우선 지원과, 계엄령 여파로 소비자 발길이 끊긴 중소 음식점 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가계의 소비 여력이 없다고 지적한다. 주거용 대출 등으로 원금·이자 갚느라 지갑을 닫는 것이다. 추경이 우선 필요하지만 올 한 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해 나갈 중장기적 대안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원·달러 환율은 1500원 선을 넘보고 있다. 지난달 31일 외환위기 재발 위험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경고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나

왔다. KDI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다수의 신흥국에서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보유액을 소진하다가 외환위기가 발생한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러한 경고가 기우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환율은 비정상 상태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 정치 혼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금의 해외 유출 우려가 상존한다. 또 주식시장은 곤두박질을 거듭했다. 탄핵소추 심리 및 내란혐의 수사의 진전 여부와 별도로, 자본시장 정상화의 단초는 금융당국의 의지와 추진력에 달려 있다. 환율·주식 추이는 연초부터 조미의 관심사가 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당신 주변에는 LS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뒤에는 LS가 있습니다

Everywhere you live and work

LS

< 전력 공급 및 제어 시스템 > < 해저 전력케이블 >

“승자독식 멈추려면 선거제도·정당법 개혁해야”

인터뷰
배병인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취임 후 2년 반 동안 위태위태한 행보를 보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12월3일 기습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정치적 자멸’의 길을 걸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와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에 한국 사회는 혼란을 거듭하며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을 등에 업고 등장한 윤석열 대통령의 실패는 극단적 진영 갈등과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과제를 안겨줬다. <메트로경제신문>은 각계 전문가들을 만나 격동기의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와 이들이 제안하는 해결책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지난 12월 23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원장 사무실에서 만난 배병인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정치대학원장)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생존을 넘어 도약하려면 승자독식 구조를 해체하는 선거법과 정당법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충격·민주주의 위기 헌법·법률로 수습·단죄 필요 소선거구제 등 지역주의 강화

◆“비상계엄, 헌법과 법률 따라 수습하고 단죄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학계에도 큰 충격을 안겼다. 배병인 교수는 800명에 가까운 한국정치학회 소속 정치학자들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성명에 서명했고,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연속 집담회를 열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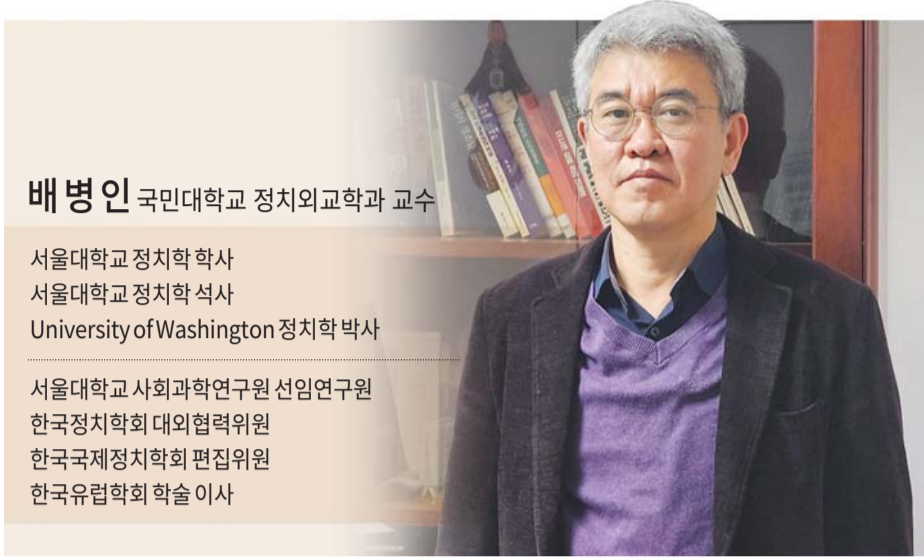
배 교수는 “적어도 한국 사회가 민주화된 다음에 헌법과 법률에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강그리 무시하는 행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암묵적으로 전제를 해왔는데, 윤 대통령이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태를 저질렀다. 대단히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배 교수는 “이제는 수습해야 하는 시점인데, 방식은 기본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도전하는 행위였으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절차적으로 수습을 해야 할 것이고 일종의 내란 내지는 친위 쿠데타를 획책한 것이니 엄중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비상계엄 수습을 다루는 정치권의 태도에도 의문을 드러냈다. 배 교수는 “국민의힘은 ‘탄핵 트라우마’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내란이나 친위 쿠데타 세력을 동조 내지는 비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단죄도 필요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갈수록 든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조기 대선을 바라보는 것 같다”며 “어떻게든 권력을 잡으면 된다”라는 생각만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 “정치권이 잘 해야 하는데”라는 걱정뿐”이라고 부연했다.

배 교수는 한국 보수 속에 암약하고 있는 ‘파시스트’들과 ‘일반적 보수’를 구별해야 한다고도 했다. 배 교수는 “이번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이 자기들이 권력을 잡고 모든 것을 전횡하려는 일종의 파시스트였다. 이들이 보수라는 외피를 썼던



배병인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서울대학교 정치학 석사
 University of Washington 정치학 박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한국정치학회 대외협력위원
 한국국제정치학회 편집위원
 한국유럽학회 학술 이사

◆“승자독식 선거제 개혁하고 비례성 높여야”

배 교수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가 한국 특유의 지역주의와 더해져 권력지향적 극우 파시스트들이 정당 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 정당은 ‘지역주의’라는 색채가 굉장히 강하다”며 “국민의힘의 강성층을 보면 대구·경북에 근거를 둔 전통적으로 보수 세력이 강한 지역구를 둔 사람들이다. 이 구도를 깰 수 있는 정치 제도가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교수는 “특히, 우리는 소선거구제다. 한 표라도 더 받으면 권력전체를 얻는 승자독식제”라며 “대구·경북 등이 보수세가 강한 것은 맞으나 그 지역에 보수적인 목소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 목소리가 과대대표(정당이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것) 되도록 하는 제도 아래에서 이들이 계속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때문에 일종의 자기 뒷발처럼 계속해서 총원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배 교수는 선거제 개혁에 대해 “사실 체면 개혁이다. 선거제 개혁 논의는 비례성 강화를 주제로 10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돼 왔으나, 위성 정당 논의로 끝나버렸다”며 “비상계엄 사태로 선거제 개혁의 이야기까지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근본적으로 그 문제까지 고민해야 할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싶다”고 힘줘 말했다.

배 교수는 구체적 선거제 개혁 방향에 대해 “승자독식 구조 해체의 핵심은 결국 비례성의 대폭 강화”라며 “전면적인 비례대표제까지 포함해서 정치 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와 충돌할 수밖에 없으므로 대통령제를 완화하거나 프랑스식의 이원집정부제 혹은 의원내각제 형태로 완전히 전환하는 논의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며 개혁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소수의 목소리도 반영될 수 있는 정당법 개혁”

배병인 교수는 정당법도 개혁해 승자독식 구조 해체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봤다. 배 교수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당원이 수백만 명이라고 한다. 이건 사실 놀라운 일”이라며 “21세기에 수백만 명의 당원을 거느린 정당이 있고 또 주요 정당이라는 것은 세계사적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정당들이 당원 민주주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냐고 묻는다면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수백만 명의 당원은 사실 이른바 민주당에서 개딸(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극성 지지층)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뿔뿔 뭉쳐 있는 집단이거나 몇몇 명망가 정치인들이 동원하는 식의 구조”라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당원이 100만 명 정도 되면

사실 그당은 당원이 내는 당비로 운영되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우리 정당은 당비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국고보조금에 의해 운영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고보조금이 어디에 쓰이냐면, 정당 내에서 특정의 명망가들이 정당 내에서 권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그 돈을 활용해서 어떤 정당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식으로 쓰인다”며 “정당에 대해 국고보조는 당연히 들어가야 하지만, 소수 의견을 가진 정당이 민주주의 정치 과정에 반영되게 하려고 지금 문제로 활동을 못 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 보조금의 취지인데, 지금은 이마저도 승자독식 구조”라고 덧붙였다.

배 교수는 “거대한 정당, 의석을 많이 차지한 정당이 엄청나게 많은 보조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자기 세를 불리고 오히려 소수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이들이 들어설 기회를 막아버리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정당 개혁을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며 “정당이 국회나 정부 안에서 권력을 나누는 집단을 넘어서서 그 자체가 하나의 민주주의를 교육하고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기구로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국고보조금 특정 세력 강화 악용 비례대표제로 소수 목소리 반영 새 정부 출범 후에도 혼란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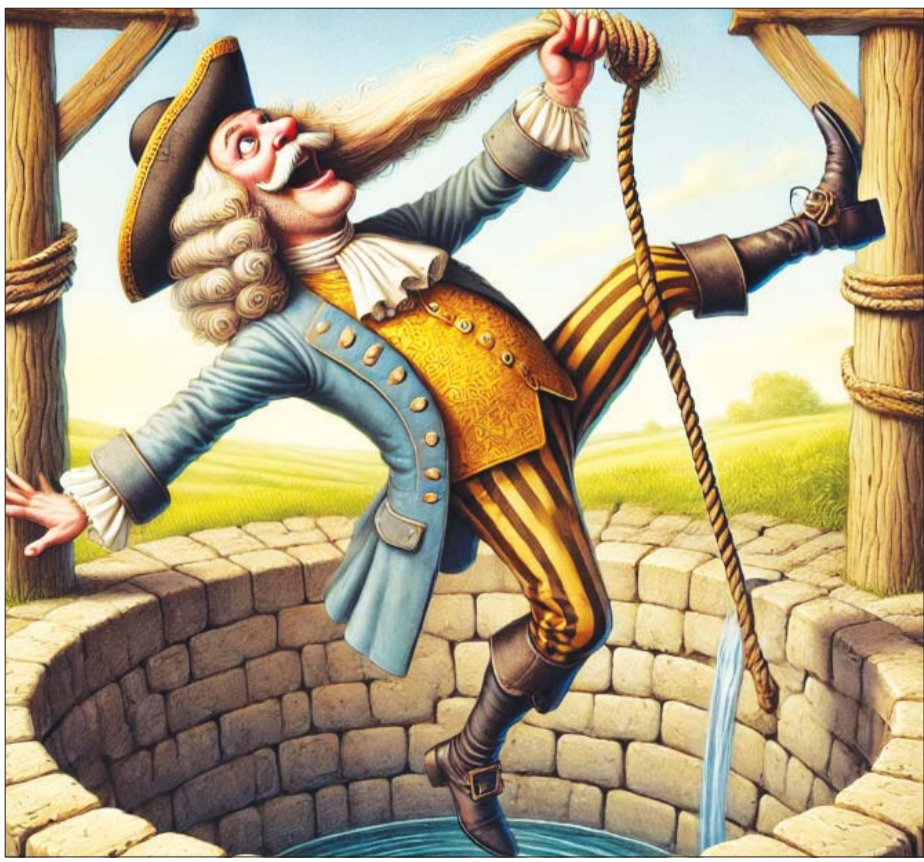
다만, 배병인 교수는 정치권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배 교수는 ‘뮌히하우젠(Munchhausen) 우화’를 소개하면서 “뮌히하우젠 남작이 우물에 빠졌는데, 이 사람이 생각해 낸 것이, 자기 머리를 잡아서 끌어올리면 우물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정치개혁도 이와 비슷하다. 이를 하려면 시민이든 국민이든 우물에서 끄집어내야 하는데,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정당들이 갖고 있어 개혁 자체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민주주의 회복탄력성 높아, 저강도 혼란은 계속될 듯”

배병인 교수는 이번 사태에서 보여준 높은 회복탄력성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앞날은 밝으나 단기적으로는 저강도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배 교수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일부 정치인이 파시스트적 성향을 보이고 있을지 몰라도 시민들의 의식 자체는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사실상 젊은 세대가 주도해서 탄핵소추안 가결 사태를 끌어낸 것이라서 긍정적인 자산이고 한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밝다”고 했다.

다만 배 교수는 “진영 논리가 횡행하는 이유는 승자독식 구조의 정치제도 하에서 상대 정당과 나의 정당을 차별화시켜야 하고 제3의 선택지를 막아야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진영화시키는 담론들을 생산해내고 있다고 본다”며 “승자독식 구조를 바꿔야지만 시민들의 높은 의식과 정치인들의 낮은 의식 사이 괴리를 좁힐 수 있을 텐데, 이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이들이 정치인들이라서 적어도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론 저강도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배 교수는 우물의 빠진 뮌히하우젠 남작이 자기 머리를 잡고 빠져나오려고 한 우화를 소개하면서, 정당이 주도하는 정치개혁의 한계를 빗대 설명했다. 그림은 Chat CPT가 생성한 뮌히하우젠 남작 우화에 대한 이미지.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완공

하나금융그룹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이들의 웃음과 희망을 지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진심은

하나금융그룹이 6년간 쉬 없이
달려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00개의 어린이집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소외 없는 틈새 돌봄으로
보육 사각지대를 채우는 데 집중하며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행복한 세상에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100호 봉화군 석포하나어린이집

꿈을 담은 100호 어린이집의 완공으로
7,519명 어린이 돌봄 가능

누구 하나 소외 없이, 평등한 보육을 약속하는 어린이집
장애아 대상 18개소 / 농어촌 지역 30개소 건립

100호 어린이집으로 이루는 상생
1,510명 일자리 창출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전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트럼프 대통령 국내 경제인 대화'가 열려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권영수 LG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대기업 총수 20여 명이 참석했다. /뉴스

美 관세폭탄·정책 '올스톱'... 유연한 글로벌 대응책 필요

K-산업 재도약

국내 산업계가 2025년 글로벌 복합 위기를 넘어 재도약 준비에 나선다.

국내 대기업들은 탄핵정국에 이어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관세폭탄과 고환율까지 국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을 새로운 기술과 시장으로 돌파한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으로 정부 정책이 멈춰서면서 기업들은 각자도생으로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산업군은 고환율과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로 반도체와 자동차, 2차전지 등 국내 주요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트럼프 2기 정부 정책 등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으로도 관측된다.

반도체업계, 中 저가 물량 공세에 HBM 시장선점, 경쟁사 협력 박차
美 상무부와 보조금 협상 최종 확정

자동차업계, 수입차 추가 관세 현실화 생산시설 확대·파워트레인 대응

이에 반도체 전자 업계는 중국 업체들의 추격을 따돌리고 '트럼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한다는 전략이다. 다만, 지난해 통과가 예상됐던 반도체 특별법이 보류되자, 해외 시장 다변화와 신기술 투자 확대를 고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의 경우 중국 메모리사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등의 저가 물량 공세에 주력 사업인 레거시(범용) DRAM의 수익성 악화가 길어지고 있다. 실적 반등을 위해 삼성전자는 올해 HBM 양산 초기 수율 확보에 사활을 건다는 분위기다. 6세대인 HBM4 개발을 내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계획대로 진행하는 등 차세대 HBM의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맞춤형(커스텀) HBM 사업화에 파운드리 경쟁사인 TSMC와의 협력 가능성도 시사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적과 동침'도 불가피하다는 전

략이다. 파운드리 고객 확보와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전략을 집중 점검하고 '초격차' 반도체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적자를 지속하는 파운드리사업의 수장을 교체하고, 사장급 최고기술책임자(CTO) 보직을 신설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트럼프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상무부와 반도체 보조금 협상을 최종 확정하며 미국 투자를 본격화한다. 삼성전자는 47억4500만 달러(6조9000억원), SK하이닉스는 4억5800만 달러(6600억원)를 받는다.

삼성전자는 전체 투자금을 10조원 정도 줄인 만큼 후공정 패키징 시설을 제외하고, 공장 2곳과 연구개발 시설을 짓게 된다. 투자 효율을 감안해 4나노보다 2나노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SK하이닉스는 2028년부터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을 본격화하며, AI 칩 외부 협력도 강화한다.

올해 자동차 분야는 유연한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추가 관세가 현실화되면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완성차와 부품업체의 수익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그동안 수입차에 대한 관세 확대를 강조한 만큼 현대차그룹의 부담도 크다. 현대차그룹의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은 약 40%대로 기본관세 10% 부과시 차량 원가 상승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현대차그룹은 생산시설 확대와 유연한 파워트레인 대응능력을 토대로 영업기반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준공으로 생산능력을 확대해 장기적으로 미국 내 생산비중을 약 7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다양한 파워트레인에서 양호한 시장지위를 보유하고 있어 타 업체 대비 규제환경 및 소비자 선호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 가능할 전망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오는 3일 예정된 신년회에서 임직원들에게 새해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의 한국 승용차 시장 진출도 앞두고 있다. BYD가 한국 시장에 진출에 대한 전략을 공

개하지 않았지만 국내 전기차 시장에 긴장감이 확대되고 있다.

배터리 산업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과 중국발 저가 공세, 고환율 부담 줄이기에 나선다.

배터리 업체들의 주요 고객사인 완성차업체들이 하이브리드(HEV)를 강화하고 있어 수요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리스크도 크다.

배터리산업, 전기차 수요회복 더더 中 저가 배터리, 고환율 부담 줄여야
철강산업, 수입쿼터 축소 가능성

조선업계, 고부가 친환경 선박 중심 수주 확대 통한 실적 개선 가속화
美 조선업·방산파트너 전망 '긍정적'

또 중국에서 과잉생산된 저가 배터리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다. 중국 배터리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2021년 상반기 18.2%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상반기 38%까지 상승했다. 달러로 환전자금을 빌려 미국 현지 공장을 건설한 만큼 고환율에 따른 채무 부담 줄이기에 집중한다. 삼성SDI의 스텔란티스 미국 현지 배터리합작 법인은 미국 정부로부터 저리 대출을 받아 금융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철강산업의 경우 트럼프 정부의 관세폭탄 및 수입쿼터 축소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중국의 철강물량 밀어 넣기에 따른 부담이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발 수입물량 역시 잠재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7월 철강업계를 대표해 중국산 저가 철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반면 조선업계는 올해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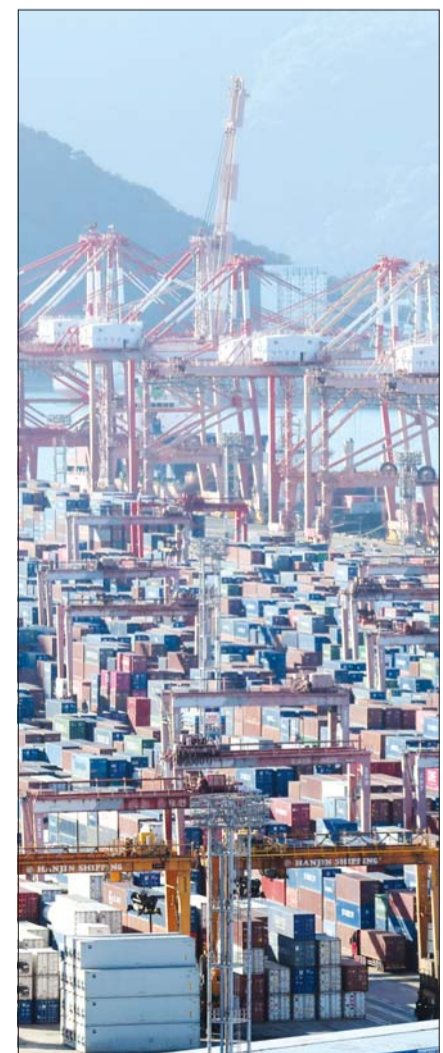
조선업계는 저가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는 중국과 달리 고부가 친환경 선박을 중심으로 수주 확대를 통한 실적 개선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국내 조선사들은 3년 치 일감을 넘어선 충분한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가 점찍은 조선업·방산파트너로서의 전망도 좋다.

여기에 한화그룹의 경우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조선업에 진출하며 미래 먹거리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6월 20일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필리(Philly) 조선소 지분(100%)을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 결과 한화오션은 국내 조선업계 최초로 미국 해군 MRO 사업을 수주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세계 관계자는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대응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며 "현재 우리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양성운·구남영·차현정 기자
ysw@metroseoul.co.kr



1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뉴스



“먼훗날 네 여정은
 지금보다 훨씬 즐겁고
 더 안전할거야.”

더 즐겁고 안전한 미래 모빌리티,
 현대모비스의 전동화 기술이 만듭니다

HYUNDAI
MOBIS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원·달러 환율 급등과 정치·경제적 위기'를 표현한 이미지

불경기에 금리인하 불가피... 상반기까지 고환율 지속 전망

고환율 언제까지

원·달러 환율이 연일 고공행진하고 있다. 오는 20일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달러 강세가 뚜렷한 가운데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 여파로 원화 약세가 심화해 환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2009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달러당 1470원까지 상승했다. 정치적 불확실성, 경기 침체 장기화 등 원화 약세 요인이 여전한 만큼 고환율 추이가 올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환율 15년9개월만에 1470원 돌파
트럼프 2기 출범, 달러강세 불 붙여
물가상승에 인플레이션 촉발 우려
수출·수입 비중 높은 韓 경제 타격

◆ 1450원대 '뉴 노멀'...위기의 원·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2월 19일 달러당 1450원(주간 종가 기준)을 넘어섰다. 달러가 1470원을 넘긴 것은 지난 2009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15년 9개월 만이다. 환율은 1450원을 넘긴 이후에도 상승을 지속해 같은 달 30일에는 1470원을 넘겼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 물가가 상승해 기업의 원가 및 생산 비용 부담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촉발된다. 원화의 구매력이 낮아진 만큼 소비자 물가도 함께 상승한다. 한국 경제에서 수출·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내수보다 큰 만큼, 환율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원·달러 환율 상승의 최대 요인은 공약으로 연방정부 재정 확대·적대적 무

역상대국에 대한 관세 인상 등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2기'에 대한 기대감이다.

앞서 시장에서는 트럼프 당선 시 연방정부 재정 확대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 금리 인하 지연 등으로 달러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미 공화당과 트럼프가 지난해 11월 미국 선거에서 백악관뿐만 아니라 상·하원에서 과반을 확보하는 '레드 스윙'을 기록한 이후 달러는 강세를 지속 중이다.

달러 강세에 주요국 통화의 달러 대비 가치가 일제히 내림세지만, 원화 가치 하락은 특히 두드러졌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및 이에 따른 탄핵 정국 여파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하면서다.

주요국 통화가 지난해 11월 말과 비교해 1~3%대의 달러 대비 가치 하락을 기록한 가운데, 원화는 5%의 하락을 기록했다. 원화보다 하락률이 높은 주요국 통화는 엔화(5.2%)가 유일하다.

원화와 동조성이 높은 엔화도 약세를 지속하면서 원화 약세의 재료가 되고 있다. 원화는 통상 엔화 가치가 변동하면 이에 동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앞서 일본은행이 지난 12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3연속 동결한 가운데, 1월에도 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하면서 엔화 가치는 급락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달러당 140엔까지 하락(엔화 가치 상승)했던 엔·달러 환율은 12월 말 달러당 158엔까지 상승했다. 이는 작년 7월 '초엔저' 당시 수준이다.

◆ 불경기와 맞물린 고환율...고민 깊은 한은

통상 환율이 빠르게 상승하면 중앙은행은 통화 가치 유지를 위해 금리를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한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통화 가치가 높게 평가돼 환율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은행에 있어 금리 동결은 쉽지 않은 선택이다.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내 소비자심리지수는 88.4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소비가 크게 위축됐던 지난 2022년 11월 이후 최저치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낮을수록 소비자가 경기 상황을 평균보다 나쁘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불황 터널 속 소상공인 경영난 심화 한은, 기준금리 인하 단행 가능성 원화 대비 달러 강세 당분간 지속 전문가, 원달러 환율 상고하저 전망

소비 심리의 위축 속도도 빨랐다.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직전 달 대비 12.3포인트(p) 하락했는데, 이는 코로나19 발병 초기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됐던 지난 2020년 3월(18.3p 하락) 이후 최대 낙폭이다.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도 한계 수준이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이용자 가운데 90일 이하의 연체자에게 제공되는 '중개형 채무조정'을 이용한 채무자는 1년 사이 177% 늘었다. 3달 이하의 연체에도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이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가 환율 추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시장에서는 한은이 오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뒀다.

씨티그룹은 "한은은 게임 사태에 대응해 안정적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할 것"이라며 "1월 금통위에서 0.25%p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크레디트아그리콜은 "한은이 오는 2월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크지만,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 지표가 악화하면 1월로 금리 인하를 앞당기는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했다.

오는 20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더불어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올 한해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한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경우 원화 대비 달러 강세는 당분간 더 심화할 전망이다.

◆ 환율, 올 상반기 고비 될 것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완만히 하락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 등 원화 약세 요인이 해소되고, 달러 강세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잦아들면 환율이 점차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새해 들어 거래량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고, 수출업체 물량 출현을 통한 은행권 단기 차입을 확대하면 환율 수준도 안정화할 것"이라며 "상반기 평균 환율은 1400원대 초반으로 예상되며, 이미 높은 지금 수준에서 내년 연간으로는 '상고하저'의 궤적을 보일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전규연 하나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달러는 고용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는 시점부터 완만한 속도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올해 원·달러 환율 경로는 상고하저의 움직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며 "원화의 대내외 취약성과 미국 예외주의 지속, 무역분쟁 리스크 등을 고려하면 시점은 다소 지연될 수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코스피 2330~2870 예상... ‘트럼프·저금리·밸류업’ 주목

〈조선·방산〉

〈플랫폼·바이오〉

〈은행·보험〉

증시 전망

2024년 한해는 한국 증시가 부침을 많은 겪은 해였다. 대표적으로 ‘12·3 계엄령’,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갈등’, ‘미국발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 등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일들이 많았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도 대내외적인 영향으로 자본시장에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경기회복 가능성과 기술주 중심의 성장세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며 투자자들에게 신중하면서도 전략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메트로신문은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등 주요 6개 증권사(가나다, ABC 순) 리서치센터장에게 2025년 증시 전망에 대해 물어봤다 <편집자주>

◆ 국내 장세 ‘상저하고’ 전망

6대 증권사 모두 2025년 국내 증시가 글로벌 경제 회복 흐름에 발맞춰 국내 장세가 ‘상저하고’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초에는 금리, 환율, 무역 불확실성 등의 요인으로 약세를 보이다, 하반기에는 글로벌 경기 회복과 기업 실적 개선 기대에 따라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2025년 코스피 지수 예상치(미래에셋증권 제외)는 평균 2330~2870로 집계됐다.

정치적 불확실성 등 상반기 약세 하반기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 ‘추세적인 상승 기대하기 어려워’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 시중 금리 및 수입 물가 상승 우려와 관세 시행 가능성, 기업이익 추정치 하향 등으로 연초에는 코스피 약세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1분기 말 기업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이 마무리되고, 미국 감세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2분기부터 주가 반등 기회를 잡아 전환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올해 초에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트럼프 집권 초기의 무역 관련 노이즈가 있을 수 있으나 페닉셀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며 “오히려 2025년 이익 추정치 높은 기업들과, 그런 기업들 중 나뉘고 과대한 기업을 선별해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김영일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하반기 이후 본격적인 트럼프 정책 시행으로 인한 리스크 현실화와 미국우선주의 강화, 인플레이션 반등 등 불확실성 요인 유입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발 불확실성도 주

리서치센터장 2025년 증시전망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	유중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코스피 지수 전망	-	2300~2800P	2250~2850P
투자 유망 업종	조선, 전력기기, 반도체, IT 서비스, 헬스케어, 엔터, 인터넷·게임	트럼프 수혜주(조선, 방산), 은행, 보험, 플랫폼, 바이오	K-Culture (엔터, 음식료, 화장품 등)
증시 위험요인	트럼프 행정부 정책 변수, 인플레이션 압력 유발 시 연준 금리 인하 경로에 불확실성 제공할 수도	트럼프 행정부 정책, 한국 탄핵 리스크, 기업 실적 부진, 공매도 재개	트럼프의 관세 정책, 대대상 관세 정책 국내 시장 부정적 영향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	김영일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
코스피 지수 전망	2300~2800P	2400~2900P	2400~3000P
투자 유망 업종	소프트AI, 변압기·송전망	자동차, 기계, 소프트웨어, 조선, 지주·상사(방산)	반도체, 바이오, 금융, 자동차, 인터넷, 엔터
증시 위험요인	정치적 불확실성, 미중 무역 갈등 양상	트럼프 집권 초기 무역 관련 노이즈, 높아진 외환시장 변동성	트럼프 내각 구성 이후 정책 불확실성 확대, 금리인하로 수요 측면 물가 상승압력 확대 가능

의해야 한다고 봤다.

◆ 을사년 이괄 유망주는?... “AI, K-컬처 등 다양”

6인의 리서치센터장들은 2025년 유망주로 인공지능(AI)을 필두로 하는 기술 중심 산업이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트럼프 수혜주 ▲K-culture(엔터테인먼트, 음식료, 화장품 등) 관련주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관련주 등을 유망 업종으로 꼽았다. 특히 하반기에는 트럼프의 정책 기조와 강도 등을 살펴 보면서 투자 방향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유중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트럼프 수혜주(조선, 방산), 낙폭과대 밸류업(은행, 보험), 저금리 수혜주(플랫폼, 바이오)를 투자유망 업종으로 제시했다. 또한 유 본부장은 “낮은 금리와 경기 변화에 둔감한 플랫폼, 바이오, 엔터 관련 종목에 이목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과잉 완화”는 ‘버블장세’를 낳고, ‘버블장세’는 ‘(실적이 빈약한) 성장주’가 이끈다. 즉, ‘대형주’ 부진으로 지수 상승은 제한적인 가운데, 밸류업이 확장될 수 있는 업종이 주목을 받을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하드 AI(투자)’가 주목받았지만, 앞으로는 ‘소프트 AI(응용)’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밸류업 확대 가능 업종에 주목했다.

아울러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무역 분쟁 이슈에서 상대적으로 자

유로운 IT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인터넷·게임, 헬스케어 업종이 (투자에) 유리하다”고 전망했다.

김영일 센터장은 코스피 지수와 관련한 투자에 대해 “코스피 지수의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면 서도 코스피 2500선 이하는 하방 리스크보다 지수 상승 가능성이 높은 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스피 2500선 또는 그 이하에서는 주식 비중을 늘리고, 3000선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 상승세가 전개될 경우 점진적으로 현금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트럼프 2기 정책 핵심변수 작용 방산 등 전통 제조업 수혜 전망 “AI, 반도체 여전히 중요한 섹터”

◆ 돌아온 트럼프... 서해개미 투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과 함께 미국 주식시장은 새로운 성장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6개 증권사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와 규제 완화 정책은 미국 기업 실적을 끌어올리고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글로벌 교역 둔화와 일부 산업의 불확실성도 여전히 우려된다.

트럼프 정부는 대중 관세 60% 확대와 보편 관세 도입을 통해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

려는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증권사들은 이에 따라 자동차, 철강, 화학, 방위산업 등 전통 제조업 분야를 주요 수혜 업종으로 꼽았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관련 규제 완화와 투자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AI 기술과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유망한 투자처로 평가되는 이유다. 여기에 금융 업종 역시 규제 완화로 인해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김영일 센터장은 “전기차·배터리·재생에너지 관련주는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AMPC(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폐지 또는 축소, 화석연료 중심 정책 등으로 성장세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이런 불안정적인 요소를 줄이고 안정적인 접근을 원하는 투자자라면 미국 S&P 500 지수 ETF를 활용한 분산 투자가 유효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희찬 센터장은 “미국 S&P500 지수 ETF를 사면 무난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으며, 여전히 AI 및 반도체가 중요한 섹터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김동원 센터장도 “2025년은 ‘경기의 완만한 확장 + 금리 인하’의 조합이 나타날 것”이라며 “트럼프 재집권기에도 주식시장이 마냥 나쁘지만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수혜주로 ▲AI 관련주 ▲경기민감주 ▲금융주 등을 언급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ChatGPT에 의해 생성된 ‘2025년 주식 투자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투자자들’ 이미지.

금리인하 vs 대출규제 ‘시소게임’... 박스권에 갇힌 시장

부동산 전망

올해 부동산 시장은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큰 상반기에는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일단 관망하라고 조언했다.

◆ 지역간 양극화 심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수도권 주택가격은 1% 상승, 지방은 2% 하락으로 예상했다. 지방의 경우 작년보다 하락폭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본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역시 수도권 주택가격은 1% 상승, 지방은 보합으로 전망을 내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일단 서울과 수도권의 인기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지역 양극화는 작년 못지 않게 두드러질 수 있다”며 “전체 미분양아파트의 80%를 차지하는 지방의 경우 핵심 수요층인 젊은 인구의 이탈, 지역경제 위축 등이 겹쳐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저하고 속 지역 양극화 심화 규제 강화로 대출 심사 문턱 ↑ 하반기, 공급 절벽이 시장 변수

박 위원은 또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지방 주택시장도 숨통이 트일 수 있겠지만 지방의 부동산시장 침체는 구조적 문제로 수도권과 동조화 현상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작년 11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만 5146호다. 이 가운데 지방 물량이 5만 652호로 77%를 차지한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 8644호로 4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월세시장도 분위기는 비슷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월세 시장 역시 매매가격과 같은 방향성으로 봐야 한다”며 “매매 가격이 오르는 곳은 따라서 상승할 것이고 반대의 경우는 하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수요자, 급매물·분양가 중심 전략 투자자, 추가 관망하며 신중히 접근 유동성·규제 맞물린 복합적 시장

◆ 금리인하 vs 대출규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나면 올해 부동산 시장은 금리인하와 대출규제 간 시소게임 양상이 될 전망이다. 금리인하로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지만 대출규제로 돈줄이 막힐 수 있어서다.

시장에서는 올해 한국은행이 금리를 세 차례 추가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연 3.0%인 금리가 연 2.25%까지 내려갈 수 있다.

반면 대출규제도 예고되어 있다. 오는 7월에는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가산금리를 부여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된다.

이 연구위원은 “기준금리를 내려도 실제 대출금리의 인하가 수반되지 않으면 민간에서의 체감효과, 특히 주택구매 등에서는 가시적인 영향을 미치지 어렵다”며 “이미 앞서 미국 기준금리(4.25~4.5%) 인하에 맞춰 한도 기준금리를 인하했지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백광제
교보증권
수석연구원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수요심리 위축
관망 분위기
계속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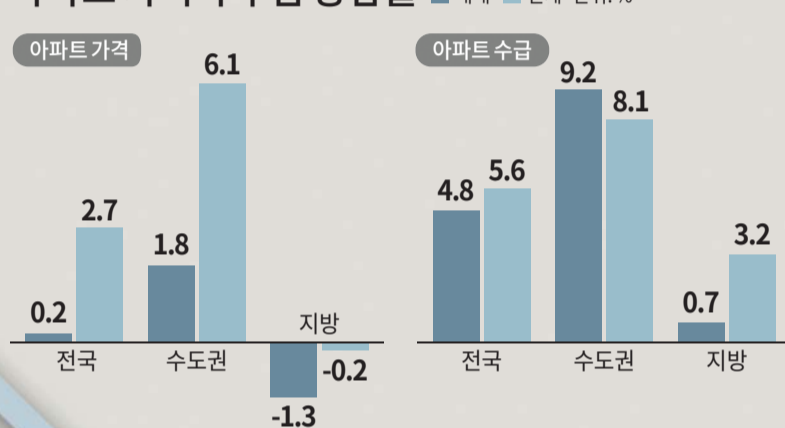
“**상승·하락
모두 제한된
횡보세 가능성**”

“**역세권 급매 전략
실수요자에
여전히 유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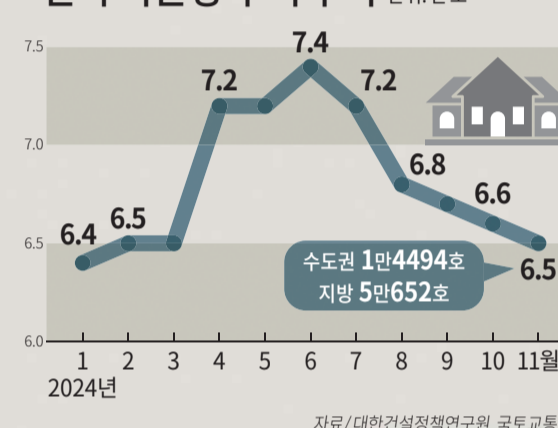
“**수도권 중심
신축 선호 현상
더욱 강화될 듯**”

“**대출 규제 속
금리인하 효과
미미할 것**”

아파트 가격과 수급 증감률



전국 미분양 주택 추이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부동산 시장 금리인하와 대출규제를 표현한 이미지.

만 시중의 대출금리 변동폭이 크지 않았던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아파트 ‘공급 절벽’이 이슈가 될 수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6만 4425가구다. 2024년보다 27%(9만 9426가구)나 줄어든다. 지난 2013년 이후 가장 적은 물량이다.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착공 실적은 2022년부터 급격히 감소했으며, 2024년에도 회복하지 못했다. 인허가 실적은 10년 평균 대비 약 60% 수준이며, 착공 또한 약 57%에 머무르는 수준이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규제가 심해지고 가산금리는 인상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도 집값은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며 “물량이 부족하면 집값이 오르기도 하지만 수요심리가 많이 위축돼 당장은 관망하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박 전문위원은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

으로 입주물량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크다”며 “공급부족 불안 심리는 침체기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회복기나 상승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아파트값은 큰 폭의 상승도, 큰 폭의 하락도 없는 지루한 박스권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 실수요자도, 투자자도 일단 ‘관망’

백광제 교보증권 수석연구원은 “실수요자의 주요 지역 내에 역세권 급매 위주의 매수 전략은 현재도 유효하지만 소위 ‘영끌’ 대출을 통한 내 집 마련은 여전히 피해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2026년 이후 매수가 적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준금리 인하가 추가로 이뤄지더라도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에 유의미한 변동이 없다면 굳이 수익형 부동산에 수요가 쏠릴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금리가 추가인하될 가능성도 기대할 사항이므로 성급한 투자보다는 상황

을 더 지켜보는 것도 현명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실수요자라면 기존에도 선호도가 높았던 주요 지역의 경우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과거의 ‘뽕뽕한 집 한 채’ 현상이 ‘뽕뽕한 신축아파트 한 채(얼죽신)’ 현상으로 진화했다”며 “수도권 집중화 경향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 내 9억원 이하의 중저가 신축이나 준신축 아파트 위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박 전문위원은 “내 집 마련 실수요자는 타이밍을 재기보다 가격 경쟁력에 초점을 맞춰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며 “급매물과 시세보다 싼 신규 분양 받기라는 투 트랙으로 접근해 서울은 고점 대비 10~15%, 수도권과 지방은 20% 이상 싼 매물을 중심으로 선별 매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2025

謹 賀 新 年



유한양행은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이 꿈꾸는 세상,
모두가 건강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유한양행

고물가부터 탄핵정국까지... 지혜롭게 불황 타개해나가야



현신균 LG CNS 대표이사 | 이석희 SK온 사장 | 박종문 삼성증권 대표 | 이흥구 KB증권 대표 | 임세령 대상 부회장 | 김윤 삼양그룹 회장 | 김형기 셀트리온그룹 부회장 |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

2025년 이끄는 CEO들

2025년 푸른 뱀의 해 '을사년(乙巳年)'이 밝았다. 겨울잠을 자고 봄에 깨어나 건강하고 모습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뱀은 '불사재생(不死再生)'의 존재로 통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재물을 지켜주는 지혜로운 영물로 여겨졌다. 고물가와 내수 침체, 탄핵 정국까지 맞물린 혼돈의 시기, 지혜롭게 불황을 극복해나갈 뱀띠 최고경영자(CEO)들의 행보가 기대되는 이유다.

◆ 산업계, 고부가가치·수익성 개선에 방점

현신균 LG CNS 대표이사는 푸른 뱀의 해를 맞아 기업의 IPO를 성공시키야 한다는 중책을 맡는다.

1965년 2월 25일 서울에서 태어난 현 대표이사는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통계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에서 통계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IT 전문가인 현 사장은 취임 후 4년 연속 사상 최고 실적을 경신하며 LG CNS의 성장을 이끌었다. 현 사장은 2022년 말 대표이사 보임 후 LG CNS의 미래 성장을 위해 DX기술 역량을 확고히 다지고, 글로벌에서 인정받는 DX전문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산업계,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 수익성 개선 최우선 등 내실 다지기

증권업계, 수익·경영성과 성장세 식품·유통업계, 美 기업 인수·방문 해외 사업 점유율 확대·집중 박차

이석희 SK온 사장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국면에 접어들어 가는데, 수익성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1965년 6월 23일 경상북도 경산군에서 태어난 이 사장은 SK하이닉스 전신인 현대전자반도체 연구원으로 입사한 엔지니어 출신 경영인이다. 회사를 떠난 후 미국으로 유학을 갔으며 인텔에서 11년 동안 근무해 경험을 쌓았다. 또한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며 학문적 기반을 다졌다. 이후 SK하이닉스에 복귀해 D램 개발부 문장과 사업총괄(COO)을 역임한 뒤 CEO 자리에 올랐다. SK하이닉스를 이끄는 동안 인텔의 중국 낸드플래시 사업부(현 솔리다임) 인수를 진두지휘하기도 했다.

이석희 사장은 SK온 사장에 선임된 이후 SK온을 2030년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시키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다.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리와 생산 체계를 안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외형 성장보다는 내실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 증권업계 뱀띠 CEO들의 도약

삼성증권의 수장은 박종문 대표는 1965년생 뱀띠다. 박종문 대표는 부산 내성고, 연세대 경영학과에서 수학하고, KAIST 대학원에서 금융공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0년 삼성생명에 입사한 박 대표는 삼성생명 경영지원실 담당임원, 삼성생명 CPC전략실장, 삼성생명 금융 경쟁력제고TF팀장, 삼성생명 자산운용부부장 등을 지냈다.

삼성증권의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5552억원) 대비 35.3% 늘어난 7513억원으로 증권사 중 한국투자증권(1조416억원)에 이은 업계 2위를 기록하며 호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KB증권은 김성현과 이흥구 각자 대표이사가 연임에 성공하며 투톱 체제로 2025년 한 해 더 KB증권을 이끌고 있다.

이 중 이흥구 대표는 1965년생 뱀띠 CEO다. 이흥구 WM(자산관리)부대 대표는 올해 대표이사에 처음 올라 조직 안정화와 영업력 강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연에 성공했다. 특히 WM 자산과 수익의 가파른 성장세를 이끌어 우수한 경영 성과를 인정받았다.

그는 KB증권의 전신인 현대증권에서 지점장을 맡으며 실무 경험을 쌓았으며 이후 KB투자증권에서 WM사업본부장, WM영업총괄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WM 분야에서 전문성을 드러냈다.

◆ 식품·유통업계, 글로벌 위상 강화

식품·유통업계에서 1977년생 뱀띠 CEO는 임세령 대상 부회장(대상홀딩스 부회장)과 허진수 파리크라상 사장, 허서홍 GS리테일 대표가 있다.

먼저, 임세령 부회장은 2012년 대상 식품사업총괄 부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상무)를 맡아 식품 부문 브랜드 매니지먼트, 기획, 마케팅, 디자인 등을 총괄했으며 2016년 전무 승진 후 마케팅담당 중역을 맡았다. 2021년 3월 승진해 대상과 대상홀딩스의 부회장을 맡고 있다.

대상은 김치 브랜드 '종가'를 주축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임 부회장은 지난해 미국 식품기업 럭키푸드(Lucky Foods)를 인수하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제1공장을 준공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 글로벌 사업 핵심 카테고리인 김치를 비롯해 소스류, 가정간편식 등의 사업을 확대한다.

SPC그룹 오너 3세인 허진수 파리크라상 사장은 2005년 파리크라상 상무로 입사해 2014년 글로벌BU장을 거쳐 2022년 1월 사장으로 승진했다. 지난 8월 허 사장은 직접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방문해 파리바게뜨의 해외 첫 글로벌 가맹점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허 사장은 SPC그룹의 브랜드 해외 사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GS그룹 오너 4세 허서홍 대표는 2025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GS리테일의 새로운 수장으로 공식 출범한다.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허 대표는 삼성KPMG 애널리스트로 경력을 시작했다.

이후 2005년 GS홈쇼핑 신사업팀에 합류했으며, 2012년 GS에너지 LNG사업팀 부장을 역임했다. 이어 경영지원본부장, 미래사업팀장을 거쳐 메디컬 에스테틱 기업 휴젤 인수 등의 전략적 사업을 주도했다. 이후, GS리테일로 자리를 옮겨 약 1년 동안 경영지원, 신사업, 대외협력 조직을 총괄했다. GS리테일은 허 대표 출범 후, 본업 경쟁력을 높이며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있다.

제약·바이오, 미래 핵심 사업 집중 글로벌 시장 진출 등 역량 펼쳐

K뷰티·패션, 글로벌 플랫폼 통해 국내외 K뷰티 성장세 이어갈 전망 국내 섬유·패션 정책 제안 등 주도

◆ 제약·바이오 업계, 미래 핵심 사업 강화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도 뱀띠 인물들이 K제약·바이오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역량을 펼친다.

올해 새로운 100년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삼양그룹의 김윤 회장은 1953년생으로 지난해 창립 100주년을 맞은 삼양그룹의 3세 경영인이다.

삼양그룹은 그동안 주력해 온 식품·화학 사업과 함께 미래 핵심 사업인 의약바이오 사업에도 더욱 집중한다. 삼양그룹은 의약바이오 사업을 전개하며 약물전달시스템(DDS), mRNA 기반 유전자치료제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주력하고 있다.

동아쏘시오그룹의 성무제 에스티팜 대표와 셀트리온그룹의 김형기 셀트리온 부회장은 1965년생으로 올해 환갑이다.

글로벌 경험을 두루 갖춘 신약개발 전문가인 성무제 대표는 미국 노바티스에서 20여 년 동안 근무하며 다양한 신

약 연구개발에 참여했다.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노바티스의 경구용 유방암치료제 '키스칼리'를 공동개발하기도 했다. 성 대표는 에스티팜에서 연구개발(R&D) 파이프라인 구축, 기존 사업 재정비, 신규 사업 수립 등에 속도를 낸다.

셀트리온그룹의 핵심 인물인 김형기 부회장은 글로벌 판매사업부를 총괄한다. 글로벌 의약품 시장 최일선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자사 제품의 초기 시장 선점을 진두지휘하는 등 셀트리온그룹만의 직관 구조를 확립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와 임중훈 한미사이언스 대표는 1977년생 뱀띠다.

이창재 대표는 2002년부터 대웅제약에서 전문의약품 영업부터 마케팅까지 현장 경험을 갖췄고, ETC영업·마케팅 본부장, 경영관리본부장, 부사장 등으로 승진하며 능력을 입증했다. 지난 2021년 신규 대표로 선임된 후 2024년에는 연임에 성공했다.

임중훈 한미사이언스 대표는 지난해 5월부터 단독 대표 체제를 구축해 의약품 유통, 의료기기, 데이터 기반 선택과 집중 등 다양한 성장 전략을 내놓고 있다. 그룹 경영권 안정화라는 과제도 주어져 향후 행보에 무게감이 실린다.

◆ K뷰티·패션, 세계 시장에서 활약 기대

CJ그룹 내 핵심 계열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CJ올리브영의 이선정 대표는 1977년생으로 뱀띠다.

이 대표는 지난 2023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그룹 내 최연소 최고경영자(CEO)로 올라섰고, 현재 올리브영의 연 매출 4조원 시대를 열고 있다. 지난 2024년 3분기 기준 올리브영의 누적 매출은 3조521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9% 증가했다.

지난해 1분기 1조790억원, 2분기 1조2080억원, 3분기 1조2342억원 등으로 올리브영은 매분기 1조원대 매출을 돌파하며 실적을 경신한 것이다. 이선정 대표는 올리브영이 '글로벌 K뷰티 플랫폼'으로 도약해 국내외 유통 시장에서 K뷰티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은 1953년생으로, 국내 패션 업계 거목이다.

최병오 회장은 패션그룹형지를 이끄는 동시에 한국섬유산업협회장으로서 국내 섬유·패션업계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최 회장은 국내 섬유와 패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제안, 글로벌 교류 확장, 지속가능한 산업 전환 등을 주도하고 있다.

명품·식음료·엔터 특화매장 만들고... '내시피족' 메뉴 출시

〈나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요리법 개발 사람들〉

경제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2025년 유통 시장 역시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25년 유통산업 전망조사'에 따르면, 국내 소매유통 시장 성장률은 0.4%에 그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성장률 1.6%의 4분의 1 수준으로, 국내 실물경기의 침체를 여실히 드러낸다. 소비심리 위축과 고물가 지속, 고금리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 증가, 시장경쟁 심화, 소득·임금 불안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올해 주목받을 소비 트렌드

경기 침체 상황에서 2025년 소비 트렌드를 살펴본 결과, '오므니보어(Omnivores)' 트렌드가 유독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잡식성'이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이 용어는 나이, 성별, 지역 등 특정 집단의 특성에 따른 소비가 아닌 개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취향에 기반한 소비를 뜻한다.

유통업계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소비자의 뚜렷해진 취향을 반영한 특화 매장 및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이미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은 공간 혁신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소비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2030년까지 약 7조원을 투자해 전국 13곳에 '타임빌라스'를 구축하며 공간 혁신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전북 군산점과 광주 수완점 등 기존 점포 6곳을 타임빌라스로 재단장하고 인천 송도, 대구 수성, 서울 상암, 전북 전주 등 네 곳에 새로운 타임빌라스 매장을 개점한다는 방침이다.

신세계백화점도 기존 점포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재단장을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부산 센텀시티점 1층을 새롭게 단장해 '스포츠 수전문관'을 선보였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식음료 매장과 함께 '편시티', '플레이인더박스' 등 엔터테인먼트 공간을 새롭게 조성한다. 이 외에도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2028년 광주점 확장을 시작으로 수서점, 송도점 등을 랜드마크형 백화점으로 복합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현대백화점은 명품 중심의 공간 재배치 작업을 이어가는 한편, 올해 8월부터는 '폴리테루', '오픈 와이와이' 등 기존 백화점에서 보기 어려운 신규 브랜드를 대거 도입하며 매장을 개편했다.

대형마트 업계도 특화 매장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마트는 스타필드와 결합한 체험형 쇼펍몰 '이마트 스타필드 마켓'을 선보였다. 장보기와 휴식, 콘텐츠 경험이 어우러진 공간은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롯데마트는 기존 매장보다 약 30% 많은 식료품을 갖춘 그로서리 특화 매장을 강화하고 있으며, 홈플러스는 역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타임빌라스 전경.



농심 '신라면 톰바' 제품 관련 이미지.

롯데백화점, 2030년까지 7조 투자 13곳에 '타임빌라스' 재단장·구축 이마트, 체험형 몰 '스타필드 마켓' 장보기와 휴식·콘텐츠 경험의 공간 식품업계 '토픽경제' 트렌드 반영 농심, 신라면 톰바 하반기 최대히트 기후변화 문제에 친환경 제품 출시 풀무원, 식물성제품 품목 30% 확대



올포푸의 친환경 충전제 제품 홍보 대표 캐릭터 '머스코비' 관련 이미지. /올포푸



풀무원 '지구식단' 브랜드 제품. /뉴시스

시 신선식품 중심 '메가푸드마켓'에서 한 단계 발전한 '메가푸드마켓 라이브'를 오픈하며 특정 상품 카테고리를 강화한 매장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소비자가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하고,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토픽경제'도 중요한 키워드다.

토픽경제는 MZ세대가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 동시에 차별화하고 싶은 숨은 욕구를 반영한 키워드다. 요야정(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에 원하는 토픽을 더하고, 기존 라면 레시피에 나만의 조리법을 더한 '내시피족'이 대표적인 예다.

식품업계는 토픽경제 트렌드를 반영해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농심은 지난 9월 '신라면 톰바'를 선보였으며, 올해 하반기 최고 히트제품으로 자리매김했다. 브랜드 론칭과 함께 출시한 용기면 '신라면 톰바 큰사발면'이 출시 약 두 달 만에 500만개 판매됐다. 이어 10월 출시한 봉지면 '신라면 톰바'는 출시 약 한

달 만에 600만개 판매를 돌파했다.

오투기는 MZ세대에게 색다른 소비 경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취향대로 꾸밀 수 있는 'DIY(Do It yourself)' 팝업 스토어를 운영해 화제를 모았다.

DIY 꾸미기 공간인 '옵젤상가'와 협업해 오투기 브랜드 헤리티지를 경험할 수 있는 팝업을 기획한 것. 이러한 업계의 행보는 2025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 위축과 같은 내수 부진이 장기화 되면서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한 위한 생존 전략'으로 토픽 경제를 활용하고 있다"며 "식음료뿐만 아니라 패션, 의류 등 다양한 산업으로 토픽경제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 변화에 대한 민감성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와 기업의 태도인 '기후감수성'도 빼놓을 수 없다. 기후 문제는 미래가 아니라 당장 해결해야 할 현존하는 위험으로 급부상했다.

많은 기업들이 친환경 제품 출시에 몰두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저감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식품업계는 지속 가능한 식생활을 지향하며 비건 제품을 출시하고 관련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풀무원은 식물성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해 1년간 품목 수를 약 30% 확대했다. 풀무원은 비건 브랜드 '풀무원 지구식단'을 필두로 식물성 단백질 간편식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패션업계도 갈수록 심해지는 환경오염과 그로 인한 기후 변화에 경각심을 갖고 재활용, 자연 분해 가능한 섬유, 비건 레더 등 친환경 소재 활용을 늘리는 추세다.

스포츠 브랜드 푸마는 독일의 친환경 소재 제조 기업 심파텍스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제품을 선보이며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4050 세대를 주타깃으로 하는 패션 브랜드 올포푸 역시 친환경 충전제인 '머스코비'를 제품에 적용했다. 아울러, '머스코비' 소재 대표 캐릭터를 만드는가 하면, 인스타그램 쇼츠를 제작하는 등 콘텐츠를 활용한 친환경 소재 알리기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

앞으로는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기보다 기존의 제품을 업사이클링해 새로운 것으로 재탄생시키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상대적 고금리' 채권 등 안전자산 선호... 금 파생상품 '각광'

올해 눈여겨볼 재테크

美 연준·한은 등 서서히 금리인하 장기국채·우량회사채 투자 '주목'

2025년에도 거시경제 불확실성 요인이 여전한 것으로 보이면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금융상품이 주목받을 전망이다. 변동성이 큰 위험자산(주식, 코인 등) 보다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고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안전자산'이 선호될 것으로 보인다.

◆ '상대적 고금리'...채권 시장 재부상
지난 2024년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한국은행이 서서히 금리인하에 들어갈 것인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 다만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2021년에 경험했던 '제로 금리'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낮다. 금리인하 국면에 접어들어도 과거 대비 '상대적 고금리' 시대가 유지될 수 있다.

금리인하 국면에서는 시세차익으로 인해 기존 채권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

이 높으므로 채권투자에 관심이 살아난다. 장기국채나 우량회사채, 채권형ETF 등이 대표적인 투자가능 상품으로 꼽힌다. 또한 금리변동성에 대비해 단기채권을 병행하는 방안도 주목받는다.

◆ '원금 손실 대비'...돈을 지키는 것도 전략

경기침체 가능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적은 자산에 대한 수요도 높아진다.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의 파생 금융상품이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

금은 실물 보관이 번거롭고 비용이 들지만 ▲금 ETF ▲금 선물(Futures) ▲적립식 금 통장 등 다양한 파생 금융상품을 통해 간편히 투자할 수 있다. 2025년에도 금 가격이 달러 가치·실질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금 파생 금융상품을 포트폴리오 일부로 분산 투자하는 방식도 많아질 전망이다.

/김주형 기자 gh471@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지원, 기후동행카드 혜택 확대

2025년 서울, 이렇게 달라진다

올해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가 자녀를 출산하면 전세보증금 이자나 월세를 매월 30만원씩 지원받는다.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의 정책 수혜 기간이 군 의무복무 기간(최대 3년)만큼 연장돼 기존 39세에서 최대 42세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부터 서울청년에비인턴, 미래청년일자리 등 다양한 청년정책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 총 8개 분야에서 67개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의 미래비전인 '동행·매력 특별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확대한다

◆ '저출산 문제 해소' 출산·양육 부담 완화

서울시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꼽히는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2025년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2년간 전세보증금 이자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서울에 거주하면서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매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서울시)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월 30만원 지원
서울형 키즈카페, 200개소로 늘려
제대군인, 정책 수혜연령 확대 적용
이달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개소

하반기 기후동행카드 이용범위 확대
빨간불 시간 표시 신호등 추가 설치

신혼인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알파룸·빌트인 가전 등 신혼부부의 선호도를 반영한 소형 아파트나 신축오피스텔 2000호를 추가 매입한

다. 미리내집과 연계해 10년 후엔 대단지 미리내집(아파트)으로의 이주를 지원하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우선매수 청구권 부여 등 혜택을 제공한다.

양육 부담 완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아이들의 안전한 놀이공간은 물론 돌봄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현재 130개소에서 200개소로 늘린다. 맞벌이 부부의 출근과 초등자녀의 등교가 맞물리는 아침시간대 등교 지원 등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서울형 아침돌봄키움센터'도 10개소에서 2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출산·육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임산부 당사자에 '출산급여' 90만원을 지원하고, 배우자가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원을 지원한다.

◆ 대학생 동아리 지원·시니어일자리센터 등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에 따라 의무복무 제대군인들에게 복무기간(최대 3년)만큼 정책 수혜 연령을 확대 적용한다. 청년들이 군 복무기간 동안 누리지 못한 사회적·경제적 성장 기회를 균형있게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조례상 청년 연령은 19~39세로, 군 의무복무 청년은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42세까지 정책 대상이 된다.

팬데믹 이후 사회적 관계를 맺기 힘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기회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사회기여 활동에 참여하는 서울 소재 54개 대학 내 200개 동아리를 선정해 최대 2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중장년 일자리 지원도 강화한다. 1월에 민간 일자리 취업을 원하는 60세 이상의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를 개소한다. 은퇴 전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발굴부터 직무 맞춤형 취업교육과 훈련을 제공해 재취업과 사회참여를 돕

는다. 응급실 이용이 어려운 경증환자와 특정 질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는 서울형 응급의료체계도 구축한다. 경미한 외상이나 복통·고열 등 경증 급성 질환자는 '서울형 긴급치료센터(UCC)', 외과계 질환자는 '질환별 전담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 기후동행카드 지원 확대... 이동권 강화

시민이 뽑은 '2024년 서울시 정책' 1위를 차지한 기후동행카드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서울은 물론 김포·남양주·구리·고양·과천시에서 사용 가능한 기후동행카드는 내년 하반기부터 의정부·성남시까지 이용범위가 확대된다. 기후동행카드의 혜택 연령도 최대 42세까지 늘어난다.

보행자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횡단 보도를 건너도록 '빨간불 남은 시간' 표시 신호등도 올해 350개소에 이어 내년까지 총 800개소를 설치한다. 2030년까지 4000개소가 목표다.

이 밖에도 교통소외지역에 마을버스형 자율주행버스를 시범 도입해 시민 이동을 돕고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는 강화해 시민 불편을 덜어준다. /이현정 기자 lhj@metroseoul.co.kr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 등 첨단산업 조성

일산테크노밸리, 토지공급·분양 예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도 지정 산업역량·기반시설 조성 발전 기대

고양시가 새해 일산테크노밸리 등 첨단산업 기반시설을 추진하고 일지리와 자족시설 확대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일산테크노밸리는 첨단산업 중심 경기북부 신성장 거점으로 기대를 받아 왔으며 새해 상반기 본격적인 토지공급과 분양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ICT, 바이오 메디컬, 미디어콘텐츠, 스마트 모빌리티 등 지식기반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기업혁신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4차산업 위주의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여 기업성장과 함께 일자리 창출, 미래자족도시를 실현하고 경기 남북부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어 갈 방침이다.

일산테크노밸리는 일산서구 대화동, 법곡동 일원에 첨단산업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전체면적은 87만1761㎡(약26만평)이며 산업시설용지 36%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조감도.

(31만4263㎡), 공원녹지 21.4%, 도로 23.7%, 기타시설 용지 8.4%, 근린생활 시설 1.8% 등이다. 2023년 10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현재 조성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새해 상반기 토지공급 및 분양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지난해 10월 경기북부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하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됐다. 대상지역은 고양시 장항, 법곡, 식사, 백석, 화전, 동산, 원흥동 등 8개 행정동에 걸쳐 면적 125만㎡(약 37만8천평)에 달한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는 벤처기업, 대학·연구기관, 지원기관 등을 일정지역에 밀집시키고 기술개발, 투자유치, 기업지원 등 효율성을 높여 벤처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입지 지원제도다. 경기 북부에서는 고양시가 최초로 지정됐다.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지구내 벤처기업은 취득세·재산세 최대 50% 감면, 개발부담금 등 5가지 부담금 감면,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의무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산테크노밸리도 전체 면적이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입주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토지분양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새해에는 일산테크노밸리 토지분양으로 첨단산업 단지 조성이 구체화되고 경제자유구역 산업부 최종지정 신청, GTX-A 노선 개통 등 고양시의 산업역량과 기반시설 조성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전남도, 뱀 관련 지명 42곳... '전국 최다'

'푸른 뱀띠 해' 맞아 전국 지명 분석
고흥 영남면 금사리 사도 '명당'

전남이 전국에서 뱀 관련 지명(地名)이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5년 을사년 '푸른 뱀띠 해'를 맞아 전국 30만 여 개의 지명을 분석한 결과 뱀 관련 지명이 210여 개며, 이 중 전남이 42곳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십이지 중 뱀은 구약성서에서는 아담과 이브를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어 교활함의 대명사로 비유되기도 한다. 하지만 선조들은 알과 새끼를 낳아 다산과 풍요·재물의 가복신(家福神)으로, 지혜와 예언 능력·근질긴 생명력과 죽은 이의 부활과 영생을 돕는 존재로 인식하기도 했다.

전남지역 뱀 지명은 종류별로 마을이

27개, 계곡이나 섬이 각각 5개, 산 3개, 골짜기 2개다. 시·군별로는 고흥이 6개, 광양이 5개, 여수·보성·장흥·해남·완도가 각각 3개며, 나주와 구례·진도·신안이 각각 2개 등이다.

뱀 관련 지명 중 뱀의 모양과 관련된 지명이 가장 많았고, 대표적으로 뱀처럼 긴 모양의 섬으로 '장사도', 구불구불한 모양의 '뱀골' 등이 있다.

뱀의 모양을 묘사한 지명 중 뱀이 개구리를 쫓아가는 지형인 '장사추외형(長蛇追蛙形)'은 먹을 것이 풍부한 좋은 터로, 풍수지리학자들이 일컫는 명당의 하나다. 고흥 영남면 금사리의 사도가 해당된다.

전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지명의 활용도,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중장기 관리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서울형 라이즈, 기본계획·위원회 구성 완료

대학·지역 동반성장 도모

서울시가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Rise-라이즈)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형 라이즈 기본 계획' 수립과 민·관·학 기반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서울 혁신 대학 지원 위원회'(서울 라이즈 위원회) 구성을 마쳤다고 1일 밝혔다.

시가 교육부에 제출한 서울형 라이즈 기본 계획은 ▲글로벌 대학 경쟁력 강화 ▲지역 사회 동반 성장 ▲서울 전략

산업 기반 강화 ▲대학 창업 육성 ▲평생·직업 교육 강화 등 5대 프로젝트, 12개 핵심 단위 과제로 이뤄졌다.

시는 대학 주도로 프로젝트와 단위 과제들을 유기적으로 조합하고 설계해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서울 혁신 대학 지원 위원회에는 서울시 관계 실·국장, 출연기관장, 대학 총장, 민간 전문가 총 20명이 참여한다. 서울시장과 대학 총장 1인이 공동 위원장을 맡아 위원회를 운영한다.

/김현정 기자 hjk1@

동해중부선 개통... 동해안 경제 활성화 전망

3.4조 투입해 15년 8개월 만에 완공

포항과 삼척을 잇는 동해중부선이 새해 첫날 개통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 동해권 경제가 크게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경북도에 따르면 동해중부선(포항~삼척) 철도사업은 총연장 166.3k

m, 총사업비 3조4000억원을 투입해 2009년 4월 착공 이후 15년 8개월 만에 완공됐다.

동해선 첫 열차는 새해 첫날인 1월 1일 새벽 5시 28분 강릉에서 출발해 경북 울진, 영덕, 포항, 경주를 거쳐 종착역인 부산 부전역에 도착했다.

강릉~부전 구간은 ITX-마음이 왕

복 8회 운행되며, 강릉~대구 구간은 ITX-마음 왕복 2회, 완행열차인 누리로가 왕복 6회 운행된다.

이로써 그동안 철도 불모지였던 동해안에 대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면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동해선 개통으로 강릉에서 부산까지 4시간 48분, 강릉에서 대구까지 환승 없이 4시간에 이동이 가능해진다.

/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

Gallery **오름**
2025신년기획

태양의힘
다시한번
대한민국



태 양 의 작 가

신동권
초
대
전

1.1(수) ▶ 1.13(월) 갤러리아람

An Invitational Exhibition by SHIN DONG KWON

dongkwon

헌법재판관 임명에 與野 반발... 대통령실 참모진 사의표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국가 신인도·경제 고려 '절충안'
"비서실 사표 수리할 생각 없어"

야권 "당장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
여권 '8인 체제' 尹 빠른탄핵 우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은 나름의 절충안으로 보인다. 야권의 '연속 탄핵'을 막고, 여야 합의를 해야 한다는 뜻도 모두 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여야 모두의 반발을 불러왔다. 대통령실 참모진은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2024년 마지막날인 12월 31일 오후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내란일반·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하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했다. 정치권에서도 최 권한대행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사용할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2인 임명은 국무위원들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025년 을사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 참배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다. 이에 몇몇 국무위원과 회의 참석자들이 상의 없이 결정을 내렸으며 최 권한대행에게 강하게 항의했다고 한다. 특히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추진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야권은 당연히 반발했다. 민주당은 내란일반·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이미 예상했으며, 헌법재판관 3인만 임명하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전날 오후 늦게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

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여야 모두를 달래기 위해 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동시에 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이미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을 보류했다. 임명 보류의 사유는 없으며, 여야 합의만을 강조했다. 하지만 연속 탄핵을 막고, 국가신인도 하락과 경제 위기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전남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을 다녀온 후 이같은 결심을 굳혔다고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 측은 국회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야당도 "당장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당분간 추진하지 않을 전망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 "탄핵 사유는 충분하지만 탄핵을 할 것이냐는 또 다른 정치적 결정이 필요한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에 대해 인내의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여권은 최 권한대행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관이 2명 추가되면서,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가 됐다. 이럴 경우 탄핵 심판의 결론이 빠르게 날 수 있다. 여당은 헌법재판관 2인 임명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남은 후보자 임명과 관련된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임명 보류된 헌법재판관 1인과 관련해 야당과 협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으로서는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집단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전남 임명 소식이 알려지자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 바 있다. 그리고 이날 최 권한대행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하는 자리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 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사실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항의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날 오후 "최 권한대행은 지금은 민생과 국정 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비서실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일부 국무위원 및 대통령실 참모진의 사의 표명에 대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는 입도 뺏기지 못하던 자들이, 내란 단죄에는 사표까지 내가며 뉘우치는 모습은 한마디로 가관"이라며 "내란 세력과 한 통속임을 입증한다"고 비판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연간수출 6838억 弗 '역대최대'... 세계 6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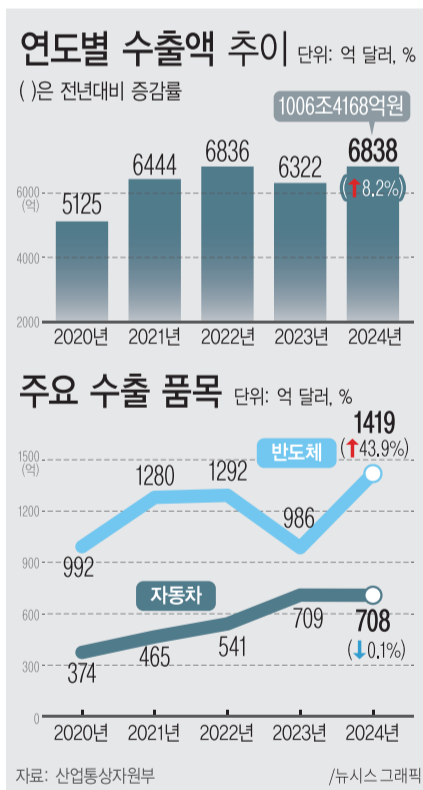
산업부, 2024년 수출액 8.2% 증가
1~9월 WTO기준 순위 2단계 경중

작년 연간 수출액이 2년 만에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특히 수출 상위 10대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며, 1~9월 누적 수출액 기준 세계 6위로 올라섰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8.2% 증가한 6838억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기존 연간 최고 실적은 2022년 6836억달러로 2년 전 최고기록을 넘어섰다.

특히, 수출 상위 10대국 중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며, 작년 1~9월 WTO 기준으로 전 세계 수출 순위도 전년 8위에서 두 단계 상승한 6위를 달성했다. 9월까지 수출 상위 10대 국 수출 순위는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한국, 이탈리아, 프랑스, 멕시코, 캐나다 순이다.

수입은 에너지 수입이 감소하며 전체적으로 1.6% 감소한 6320억달러,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621억달러 개선된 518억달러 흑자다. 무역흑자는 2018년



(+697억달러) 이후 최대 규모다. 품목별로는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8개 수출이 증가했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43.9% 증가한 1419억달러를 기록, 2023년 11월 이후 14개월 연속 증가 흐름이다. 특히 4분기에는 범용

메모리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DDR 5·HBM 등 고부가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되며 올해 전체적으로 분기별 수출이 우상향했다. 반도체를 포함한 무선통신기기·디스플레이·컴퓨터 등 IT 전 품목 수출도 2021년 이후 3년 만에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다.

자동차 수출은 하반기 주요 완성차·부품업체 파업 등에 따른 일부 생산 차질 영향으로 전년도와 보합세인 708억달러(-0.1%)를 기록, 2년 연속 700억달러 이상의 호실적을 이어갔다.

선박 수출은 2021년 높은 선가로 수주한 LNG운반선, 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선박이 본격 수출되면서 두 자릿수(+18%) 증가한 256억달러를 기록했다. 석유화학 수출은 480억달러로, 하반기 유가 하락에 따른 수출 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출물량이 확대되며 5.0% 증가했다.

바이오헬스 수출은 바이오시밀러 등 의약품 중심이었던 전년 대비 13.1% 증가한 151억달러, 농수산식품 수출은 117억달러(+7.6%)를 기록했고, 화장품 수출은 102억달러(+20.6%)로 첫 100억달러를 돌파했다. /한용수 기자 hys@

코트라, 美 CES 최대규모 통합한국관 운영

7~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서 개최
삼성·LG·SK 등 900여개사 참가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현지시간 7일~10일 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 (Consumer Electronics Show)에서 범정부 협업으로 역대 최대규모 통합한국관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CES는 IT·가전 등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대표 전시회로, 올해 'Dive In'을 주제로 주요 글로벌 기업의 AI(인공지능) 기술적용 신제품과 서비스들이 집중 전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삼성, LG, 현대, SK 등 주요 대기업들을 포함해 역대 최대규모인 900여개사가 참가한다.

산업부는 행안부·서울시 등 중앙부

처·지자체와 긴밀한 사전협의를 거쳐 36개 기관, 455개 기업 부스 위치·디자인·브랜드 등을 통합한 한국관을 구축한다.

또 통합한국관 참가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출마케팅을 지원해 수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먼저 전시회 개막에 앞서 6일 '현지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해 CES 주최사인 CTA(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와 미국 주요 금융회사 모건 스탠리 등을 초청해 미국 소비자 가전 시장 전망, 투자유치 방안 등을 논의한다.

개막일인 7일에는 '코트라-IBK기업은행 업무협약식' 체결로 국내 혁신기업 발굴과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지원 등 국내기업 해외 진출을 확대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100만원 이하 대학 연구재료비 '증빙 면제'

산업부, 3개 규정 23건 개정·고시

올해부터 산업통상자원부 R&D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자의 연구재료비 건당 100만원 이하 증빙이 면제된다.

산업부는 1일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 등을 위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

영요령 등 3개 규정의 23건을 개정·고시하고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연구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최근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신뢰성을 인

정받은 기관의 자체정산 확대 ▲대학의 100만원 이하(연간 1000만원) 연구재료비 증빙 면제 ▲반복적·공통적 제출 자료 간소화 ▲연구비카드 외 법인·개인카드 사용 인정 ▲학생연구원 연구참여 자율성 확대 등이 담겼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연구자가 보다 자유롭고 유연한 R&D를 수행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메디컬 학과 수시미충원 198명... 69명 늘어

의대 105명, 약대 50명, 치대 23명 등

의과대학을 비롯해 치대와 약대, 한의대 등 메디컬 학과가 2025학년도 수시전형에서 모집 인원 중 198명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의대 미선발 인원은 105명으로, 지난해(43명)보다 2배 넘게 늘었다.

1일 중도학원에 따르면, 메디컬 학과의 2025학년도 최종 수시 미충원 정시이월 인원은 198명으로 지난해(129명)보다 69명(53.5%) 늘었다. 수시 미충원 인원은 각각 ▲의대 105명 ▲약대 50명 ▲치대 23명 ▲한의대 20명 등이다.

의대 모집정원 확대 영향력은 의대와 한의대에서 가장 크게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의대는 2024학년도 43명에서 62명이 늘었고, 같은 기간 한의대는 10명에서 2배로 늘었다. 단, 약대(지난해 50명) 치대(지난해 24명)는 미충원 인원이 각각 2명, 1명 줄면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수시 미선발에 큰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권역별로 보면, 의대 정원 확대 영향력은 경인지역과 서울권에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의대 수시 미선발 인원은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2024학년도 3명에서 2025학년도 29명으로 늘었고, ▲대구·경북 7명에서 23명 ▲충청 16명에서 30명 ▲호남 2명에서 12명 ▲제주 0명에서 2명 ▲강원 6명에서 7명으로 증가했다. /이현진 기자 ihj@

올사년, 허리띠 조르는 저축은행... 키워드는 '백절불굴'

오화경 저축은행회장 신년사

작년 경기한파 올해까지 지속 예상 상반기까지 보수적 영업 행보 유지 자산건전성 강화, 연체율 해소 주된 부동산PF 경·공매 활성화 등 강조

올사년에도 저축은행은 보수적인 영업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경·공매 활성화와 NPL(부실채권) 매각을 강조했다.

저축은행중앙회 오화경 회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저축은행에 자산건전성 강화를 주문했다. 경영환경 악화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본 가운데 부동산 PF 경·공매 및 부실채권 매각을 우선순위로 뒀다.

오 회장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이환위리(以患爲利)' 자세를 강조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는 의미의 사자성어다. 연체율 상승과 여신잔액 축소 등 '갑약제'에도 디지털전환(DT)을 시사하



Chat GPT가 생성한 '푸른뱀과 영업하는 저축은행 직원 이미지'.

면서다. 중앙회는 지난해 저축은행 통합법인 'SB톡톡플러스'에 보이스피싱 차단 기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실명확인 솔루션을 탑재하는 등 경쟁력 제고에 공을 들였다.

올해 오 회장이 제시한 키워드는 '백절불굴(百折不屈)'이다. 어떠한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이겨내자는 의미다. 지

난해 경기한파가 올해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융합개선 기회를 노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권에서는 이르면 올 하반기 저축은행의 대출 영업이 정상화할 것이란 분석도 등장한다.

우선 과제는 연체율 해소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국

저축은행 79곳의 연체율은 평균 8.73%다. 직전 분기 대비 0.37%포인트(p) 상승했다. 이 중 기업대출 연체율은 13.03%로 직전 분기 대비 1.11%p 상승했다. 반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0.26%p 하락한 4.54%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오 회장이 일선 저축은행에서 오랜 기간 실무를 담당했던 경력에 있는 만큼 우선과제 설정 등 노선정리가 확실하다"며 "최소 상반기까지는 보수적인 영업 행보를 유지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차기 과제는 조달비용 감축이다. 그간 이자비용을 낮추기 위해 예·적금 금리를 낮췄지만 충분치 않은 입장이다. 저축은행은 채권을 발행할 수 없어 운용자금의 95%를 정기예금으로 조달한다. 이날 기준 전국 저축은행의 정기예금(1년물) 평균금리는 연 3.33%다. 전년 동기(5.37%) 대비 2.04%p 하락했다. 연말, 연초 유동성 공급을 위한 특판 상품이 자취를 감춘 이유다.

조달비용 절감 다음으로 리테일(소매금융) 확대가 요구된다. 과거 저축은

행 신용대출은 카드론과 함께 '서민들의 급전창구'로 통했다. 그러나 조달비용 상승 및 법정최고금리(연 20%)에 가로막혀 대출 문턱을 확 높였다. 건전성을 추가로 확보한 뒤 중저신용차주 대상 영업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4분기 실적을 열어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연체율 회복에 성공한 곳을 중심으로 충당금 환입이 이뤄졌을 것이라 분석이다. 저축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PF와 리테일 규모를 축소하고 사업자 담보대출을 필두로 영업을 펼쳤다. 대출금 상황에 어려움이 있어도 담보가 잡힌 만큼 건전성을 저해할 위험이 낮다. 여신잔액이 감소해도 수익성이 확대됐을 것이라 관측이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3분기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실적을 회복했고 단일 분기만 놓고 보면 흑자 전환에 성공한 바 있다"며 "담보대출 중심의 영업을 펼친 만큼 4분기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대출 미리 받으세요...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달라지는 대출제도 신생아특례대출 요건 완화 청년주택드림 대출도 출시

올사년 새해가 밝으면서 은행권 대출에도 변화가 예고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급증한 가계부채를 잡기위해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신생아대출 요건 완화와 청년 주택드림대출 등이 시행되면서 주택구입 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7월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여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시행할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1단계는 지난해 2월 시행됐고, 현재 시행 중인 2단계는 지난해 9월 시행됐다.

스트레스 DSR 2단계는 은행권 대출에만 적용되지만, 3단계에서는 전 금융권의 주택대 신용대출 등에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가산금리가 2단계보다 최소 1.5%포인트(p) 높아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스트레스 DSR 2단계를 갑자기 연기해 가계부채 대책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3단계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난해 인기가 많았던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이날부터 요건이 완화된

다. 기존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만 가능했지만 이날부터는 2억5000만원까지 3년간(2025~2027년) 완화한다.

단, 구입자금 대상 주택 요건(주택가액 9억원 이하, 대출 한도 5억원)과 전세자금 대상 주택 요건(수도권 5억원·지방 4억원 이하, 대출 한도 3억원) 및 자산 요건(구입자금 자산 4억6900만원 이하, 전세자금 자산 3억4500만원)은 유지된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청년주택드림 대출도 출시 예정이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분양가의 80%까지 2.2%의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다. 청약에 가입한 후 1년 이상 납입한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중 연소득 7000만원, 부부합산 1억원 이하인 경우 이용 가능하다.

또한 오는 13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다.

지난해까지 5대 시중은행은 주택대에서 약 1.2~1.4%, 신용대출에서 0.6~0.8%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했지만 올해부터는 주택대 중도상환수수료가 0.6~0.7%, 신용대출은 0.4% 수준으로 낮아진다.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손실비용, 행정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바뀌면서 3년내 대출을 상환하고 싶은 차주들의 부담이 줄어 들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급증한 가계부채를 축소하기 위한 대출 조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가계부채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송춘수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가 임직원들에게 취임사를 하고 있다. /NH농협손해보험

송춘수 농협손보 대표이사 "변화와 혁신 통해 성장 이뤄 나갈 것"

NH농협손해보험은 지난 12월 31일 송춘수 신임 대표이사의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NH농협손해보험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송춘수 대표이사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농협손보보험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이어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를 통해 미래 먹거리 확보가 중요하다"며 "영업환경의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실행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농촌과 함께하는 농협손보보험의 정체성을 인식하자"고 덧붙였다.

송 대표의 임기는 1일부터 시작된다. 그는 1990년 농협에 입사해 2007년부터 농협중앙회 농작물보험사업팀, 생명보험관리팀, 보험자산관리팀 팀장을 맡았다. 2012년 NH농협손해보험 출범 이후 상품고객본부장, 마케팅전략본부장, 법인영업부장, 고객지원부문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새해 분양시장 역대급 한파... 전국서 14.6만가구 공급

수도권 59%로 쏠림현상 예고 공급 절벽에 집값 상승 우려도

2025년 아파트 분양시장에 역대급 한파가 몰아칠 전망이다. '공급 절벽' 현상으로 향후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새해 전국 158개 사업장에서 총 14만613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조사 이래 가장 저조했던 2010년(17만2670가구)의 최저치를 크게 밑돌며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하는 수치다. 아직 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잔여물량(1만1000여 가구)을 포함하더라도 16만 가구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역별 분양 계획은 수도권이 59%(8만5840가구), 지방이 41%(6만290가구)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경기(5만550가구), 서울(2만1719가구), 인천(1만3571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지방에서는 부산(1만8007가구)과 충남(1만3496가구)이 1만 가구 이상을 분양할 예정이지만 대부분 특정 지역(예코델타시티, 천안·아산탕정)에 집중될 전망이다.

아파트 분양 물량 중 자체사업(도급 포함)은 53%(7만7157가구), 정비사업(리모델링 포함)은 47%(6만8973가구)로 집계됐다. 정비사업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정비사업 물량이 소진됐기 때문이다.

2025년 대규모 정비사업(1000세대 이상)은 서울의 경우 '래미안원페들라'(1097가구)가 유일하다. 경기도는 '고양원당터샹포레나'(2601가구), 의왕고천나재개발(1913가구), 딸기원2지구재개발(1096가구) 정도만 계획돼 있다.

2024년 서울 분양물량은 강남3구(서초, 강남, 송파)에 집중되었으나 2025년에는 동작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으로 분양이 확대되며 중급지 비중이 늘어날 전망이다. 상급지에서의 분양 물량이 소진된 결과로 분석된다.

2025년 아파트 분양시장은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 정책적, 경제적, 구조적 이슈가 복합적으로 얽혀 역대 최저 물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공사비 상

승'과 '정책 이행력 부족'은 시장 안정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공사비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환경 규제 강화 등 다양한 요인이 겹치면서 공사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기존 정비사업은 물론 1·3기 신도시 등 정부의 주요 공급 전략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공사비 증가로 사업성이 저하되면서 금융 지원이 어려워지고 결국 소비자에게 분양가 부담이 전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흔들림 없는 정책 이행으로 시장에 안정감을 주는 것도 필수적이다.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에 정책 공백이 장기화된다면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가 약화되고 투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전지원 기자 jiw13@

올해 산업계 AI 집중... XR·스마트홈 등 시장선점 '사활'

(확장현실)

삼성전자, 내년 XR 헤드셋 출시
AI홈 탑재된 스크린가전 공개
LG전자, AI 개념 '공간지능' 확대
세계 첫 투명 TV, 식물재배 가전
이통3사, 양자내성암호 개발 주력



향후 웨이모에 공급될 아이오닉 5 차량 렌더링 이미지.

국내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초격차 기술 경쟁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전자 등 우리 산업계는 올해 '인공지능(AI)'을 핵심 키워드로 잡고 기업 생존에 나선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와 전자, 가전 통신 업계는 AI를 기반으로 한 ▲확장현실(XR) ▲양자암호화 기술 ▲스마트홈을 키워드로 잡고 시장 경쟁력을 확보한다.

먼저 전자 업계는 빅테크와 손잡고 확장현실(XR) 사업에 본격 나선다. 시장조사 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XR 시장은 2022년 313억달러(약 44조 5700억원)에서 2028년 1115억달러(약 161조원) 규모로 늘 전망이다.

이에 따라 먼저 시장에 진출한 메타를 시작으로 삼성전자와 애플이 연이어 신제품을 공개하며 시장 선점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퀄컴과 협업해 내년에 X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을 출시한다. 멀티모달 AI를 결합해 메타 '퀘스트', 애플 '비전 프로'와 경쟁하는 차세대 폼팩터 혁신을 예고했다. 특히 XR 헤드셋의 공개를 시작으로 XR 관련 조사를 강화할 전망이다. 애플의 '비전프로'와 달리 편의성을 한층 높여 XR 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전략이다.

메타는 삼성전자가 XR기기를 출시하겠다고 발표하자 즉각 대응에 나섰다. 메타는 지난달 16일(현지시간) 자사 스마트 안경 '레이밴 메타'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했다고 발표했다.

가전 업계는 보안이 강화된 AIoT(지

능형 사물인터넷)와 가전을 결합한 '스마트홈'으로 시장 장악에 나선다. 최근 중국가전이 가성비와 기술력을 내세워 글로벌 가전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면서 국내 기업들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보안력을 강화한 가전을 내세우며 안방시장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내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에서 자체 개발한 보안 솔루션 '삼성 녹스' 기반 AI홈이 탑재된 스크린 가전을 대거 공개했다. AI 홈은 제품에 탑재된 터치스크린을 통해 스마트싱스에 연결된 모든 가전을 원격으로 모니터링·제어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LG전자는 AI의 개념을 '공간지능'으로 확대했다. 가구로도 활용 가능한 미래형 가전 등 새로운 개념의 제품을 선보이며 신시장을 발굴하고 있다. 세계 첫 투명 TV나 협타 디자인의 식물재배 가전 등이 대표적인 신개념 가전이다.

국내 통신사들은 양자컴퓨터의 해킹을 막는 양자내성암호 관련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박차를 가한다. 최근 획기적인 연산 기능을 자랑하는 양자 컴퓨터의 출시가 본격화되면서 그간 난제로 꼽혔던 과학적 계산, 신약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양자 컴퓨터의 발전으로 인한

현대차, AI 중심 모빌리티 사업 확장 웨이모 드라이버 도로주행 테스트

HD현대, 자율항법시스템 상용화 삼성重工, 시프트 오토로 기술 실증 한화오션, 자율운항 기술 연구 진행

해킹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양자 컴퓨터에 앞서 양자내성암호 개발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과학적 난제를 활용해 양자컴퓨터의 공격을 막는 기술로, 미래 상용화될 6G 네트워크와 스마트 헬스케어,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업계는 AI 기술을 접목한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기술 개발과 보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SDV는 차량에 인공지능을 통합해 다양한 장치와 산업 인프라를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7년 뒤 330조원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AI를 중심으로 모빌리티 사업 확장에 집중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10월 구글 자회사 웨이모와 6세대 완전 자율주행 기술인 '웨이모 드라이버'를 전기차 아이오닉 5에 적용

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현대차는 올해 말부터 웨이모 드라이버가 탑재된 아이오닉 5의 초기 도로주행 테스트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는 테슬라와 샤오미 등 자율주행 선두그룹과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샤오미는 카메라를 이용한 생성형 AI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테슬라는 미국 정부 정책 지원을 등에 업고 자율주행 분야 기술 고도화에 나선다. 테슬라의 'FSD(Full Self-Driving)' 시스템은 기존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운전자의 개입을 최소화한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선업계의 화두도 AID. AI 기술이 선장의 역할을 대신하는 자율운항 시스템 개발로 이어지며 해양 사고를 줄이고 운항 효율은 극대화하는 돌파구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주요 조선사들은 AI 기반 자율운항 시스템 도입을 통해 선박 운영의 안전성과 생산성을 동시에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글로벌인포메이션은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자율 및 원격 제어 선박 기술이 해운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의 약 20%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AI 기술은 선박 교량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함으로써 선상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HD현대는 영국 비디오 솔루션 회사 비디오소프트글로벌과 손잡고 차세대 자율항법시스템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비디오소프트의 솔루션은 AI와 카메라를 기반으로 제한된 가시성 지역에서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모니터링 결과를 즉각 분석해 문제 발생 시 알람을 보낸다. 이를 통해 선원 없이 원격 제어가 가능한 3단계 자율운항선박을 구현한다는 목표다.

최근에는 자율운항선박 실증에서 비디오소프트의 솔루션을 활용했다. HD 현대는 8000TEU급 컨테이너운반선에 자율운항·원격제어 기술을 적용한 통합 실증을 수행, 한국선급(KR)과 라이베리아국(LISCR)으로부터 기본 인증(AIP)을 획득한 바 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24년 11월 설계 단계부터 완전자율운항 기능이 탑재된 미션기반 자율운항 연구선박인 '시프트 오토'의 출항식을 개최했다. 시프트 오토는 삼성전자 IoT 시스템인 스마트싱스를 탑재해 데이터 수집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한층 강화했다.

삼성X중공업은 시프트 오토를 통해 선원 개입 없이 자동으로 접이안, 자율운항, 정박까지 하는 '미션 수행 기반 완전자율운항' 기술을 실증하는 한편 AI 기술을 접목한 자율운항 통합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한화오션은 시흥 R&D(연구·개발) 캠퍼스에서 완전 자율운항 기술을 구축하기 위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선원 없이 완전자율운항이 가능한 4단계 수준의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3일 시행되는 '자율운항선박 개발·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자율운항선박법)' 또한 시장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관측된다. /양성운·구남영·채현정 기자

ysw@metroseoul.co.kr

"30년 전 초심으로 돌아가 글로벌 시장 제패할 수 있는 미래 설계할 것"

(벤처기업협회장)

중소·벤처 유관단체장 신년사
벤처기업협회, 올해 창립 30주년
도전, 극복, 혁신, 협력, 글로벌 강조
R&D 투자, 글로벌 투자 유치 등 추진
글로벌화, 선택 아닌 필수... 화두 꼽혀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김명진 메인비즈협회장,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중소벤처기업 유관 단체장들은 2025년 신년사를 통해 도전, 극복, 혁신, 협력, 글로벌을 강조했다.

1일 각 단체들에 따르면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은 "나무는 춥고 긴 겨울에 준비를 시작해 이른 봄에 새순을 틔우듯 우리 역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를 위한 가장 명쾌한 해답은 '기술혁신'을 통한 변화이며, 함께 힘을 모은 이노비즈기업이 가장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995년 당시 13명의 벤처기업인들이 뜻을 모아 만든 벤처기업협회는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는다.

성상엽 벤처협회장은 "벤처는 항상

위기 속에서 강했고 IMF,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대한민국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벤처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면서 "30년 전의 초심으로 돌아가 지난 대한민국 벤처생태계를 진단하고 글로벌 시장을 제패할 수 있는 미래 대한민국 벤처를 설계하기 위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성 회장은 그러면서 벤처기업들을 위해 ▲R&D 투자 확대·기술개발 역량 향상 등 기술혁신 강화 ▲글로벌 투자 유치·해외진출 프로그램을 통한 벤처

기업 글로벌화 ▲민간자금 대규모 유치 등 벤처금융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글로벌화'는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다.

김명진 메인비즈협회장은 "올해는 메인비즈협회 창립 15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인만큼 협회는 더욱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플랫폼으로서 회원사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메인비즈협회는 회원사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메인비즈 글로벌 위원회', '글로벌 마켓 어드바이저'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한국여성경제인협회를 이끌게 된 박창숙 회장도 신년사를 통해 "여성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해외 수출과 글로벌 진출은 필수"라며 "K-뷰티, K-푸드 등 여성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 지원 인프라 확충, 해외 여성 경제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동시에 국내외 여성 기업을 연결하고, 수출 경험과 지식을 공

유해 더 많은 여성기업이 희망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이끌겠다"고 밝혔다.

얼어붙은 벤처캐피탈(VC) 시장에도 글로벌은 화두다.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은 "국내 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위한 노력에 앞장서 해외 자금의 국내 투자유치와 국내 플레이어의 해외 진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강조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 생업피해를 줄이고 소상공인들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으며 자존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정부, 소비자, 대기업 등을 아우른 '소상공인 권리장전 제정'에도 앞장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소공원은 올해 정책 5대 세부과제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도입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반대 ▲온라인플랫폼 법률 제정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소상공인 전용 특화 은행 설립을 꼽았다. /김승호 기자 bada@

교보문고 4주연속
한국소설 베스트셀러
TOP 10

원작 도서
영국, 프랑스, 미국 등
15개국 판권 계약 완료

밀리의서재
밀리로드
베스트 1위

뮤지컬 연남동 빙글빙글 빨래방

저마다의 고민으로 축축했던 마음이 뽕송뽕송해지는 곳
여기는 빙글빙글 빨래방입니다



2024. 06. 01. OPENRUN
대학로 후암씨어터



인터파크 바로가기

원작 연남동 빙글빙글 빨래방 (팩토리나인, 작가 김지윤)
프로듀서 황기현 | 연출/각색 김기석 | 음악감독 김은지 | 안무감독 윤이나 | 무대디자인 이창원 | 조명디자인 정필균
음향디자인 안형록 | 영상디자인 김태운 | 무대제작 (주)빛나 | 포스터 (주)그래피스타
주최 (주)이엘엔터테인먼트 | 제작 (주)이엘엔터테인먼트/극단지우 | 홍보마케팅 이제이컴퍼니 | 예매처 & 인터파크 | 문의 02-764-9102

와인병 휘감고, 금메달에도 ‘쑥’... “푸른뱀 기운 받으세요”

유통업계, ‘뱀의 해’ 신년 마케팅 와인병에 뱀 새겨넣은 에디션 선택 편의점업계, 푸른뱀 골드바 판매 뱀 형상화 한 디저트·음료 출시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유통업계가 신년 마케팅을 전개한다. 탄핵 정국에 이은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분위기를 반영해 예년보다는 축소된 규모로 진행한다.

주류 업계와 편의점 업계는 지혜와 신중함을 상징하는 뱀과 푸른색을 패키지에 형상화했다. 국내 와인 유통업계 1호 상장사인 나라셀라는 ‘몬테스 알파 카버네 소비뇽 뱀피 에디션’을 출시했다.

‘몬테스 알파 카버네 소비뇽’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누적 판매 1600만 병을 돌파한 칠레 최

초 프리미엄 와인으로, 와인 입문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 즐기 좋은 레드 와인이다. 적당한 무게감과 정교한 구조 덕분에 바로 즐기기도 좋고, 5년 이상의 숙성을 거치면 더욱 깊고 풍부한 맛을 경험할 수 있다.



몬테스 알파 카버네 소비뇽 뱀피 에디션. /나라셀라

‘몬테스 알파 카버네 소비뇽 뱀피 에디션’은 1만8000병 한정 출시되며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마트24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아영FBC도 국민 와인 디아블로 ‘청사 에디션’을 출시했다. ‘와인창고를 지키는 악마’라는 디아블로 고유의 전설을 모티브로 한국 특유의 전통 풍속인 ‘심어간지’와 연결해 기획했다. 병 디자인은 궁궐 단청 문양을 배경으로 도깨비의 얼굴과 푸른 뱀이 조화를 이룬다.

편의점 업계는 푸른 뱀을 담아낸 골드바 판매에 나섰다.

이마트24는 한국금거래소의 골드바 뱀 골드바 1돈(3.75g), 뱀 골드바 10돈(37.5g), 뱀 하트골드바(1g), 굴비세트 골드바 1돈, 뱀 미니피규어(3g) 등 5종



GS25 2025년 뱀의 해 에디션 상품. /GS25

이마트24는 한국금거래소의 골드바 뱀 골드바 1돈(3.75g), 뱀 골드바 10돈(37.5g), 뱀 하트골드바(1g), 굴비세트 골드바 1돈, 뱀 미니피규어(3g) 등 5종

을 판매한다. 세븐일레븐도 한국금거래소 뱀 하트 골드바 1g을 비롯해 뱀 골드바 1돈과 골드바 10돈 등 다양한 순금 상품을 준비했다.

GS25는 금·은메달 세트와 골드바 4종을 준비했다. 금 제품은 GS25 매장이나 전용 애플리케이션(앱) 우리동네GS를 통해 구매하고 원하는 장소에서 배송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12년 숙성 마계로의 초대 푸른뱀 라벨(고구마 소주)’을 필두로 ‘화요53% 청사 에디션’ ‘디아블로 청사 에디션’ ‘조니워커 블루 청사 에디션’을 주류 스마트오더 ‘와인 25플러스’를 통해 판매된다.

커피 프랜차이즈도 띠마케팅을 속속 펼치고 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새해를 맞아 1월 1일부터 2월 2일까지 워너브라더스 디스크버리 글로벌 컨슈머 프 로덕트사(WBDGCP)와 손잡고 해리포터에서 영감을 얻은 음료, 푸드, MD 등 컬래버레이션 상품들을 선보인다.

스타벅스는 새해 첫 프로모션의 슬로건을 ‘새해, 마법같은 경이로움(NEW YEAR, MAGICAL WONDERS)’으로 정하고 친근한 해리포터의 콘텐츠로

를 판매한다. 세븐일레븐도 한국금거래소 뱀 하트 골드바 1g을 비롯해 뱀 골드바 1돈과 골드바 10돈 등 다양한 순금 상품을 준비했다.

GS25는 금·은메달 세트와 골드바 4종을 준비했다. 금 제품은 GS25 매장이나 전용 애플리케이션(앱) 우리동네GS를 통해 구매하고 원하는 장소에서 배송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12년 숙성 마계로의 초대 푸른뱀 라벨(고구마 소주)’을 필두로 ‘화요53% 청사 에디션’ ‘디아블로 청사 에디션’ ‘조니워커 블루 청사 에디션’을 주류 스마트오더 ‘와인 25플러스’를 통해 판매된다.

커피 프랜차이즈도 띠마케팅을 속속 펼치고 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새해를 맞아 1월 1일부터 2월 2일까지 워너브라더스 디스크버리 글로벌 컨슈머 프 로덕트사(WBDGCP)와 손잡고 해리포터에서 영감을 얻은 음료, 푸드, MD 등 컬래버레이션 상품들을 선보인다.

스타벅스는 새해 첫 프로모션의 슬로건을 ‘새해, 마법같은 경이로움(NEW YEAR, MAGICAL WONDERS)’으로 정하고 친근한 해리포터의 콘텐츠로

매장을 가득 채운다. 특히 호그와트 마법학교에서 뱀을 상징으로 하는 슬리데린 기숙사를 많이 활용한 ‘슬리데린 머그컵’과 ‘음료 슬리데린 플럼 그린 티’ 등을 마련했다.

‘슬리데린 플럼 그린 티’는 호그와트 슬리데린 기숙사의 마스코트인 ‘초록뱀’을 형상화한 음료다.

롯데GRS가 운영하는 크리스피크림 도넛은 새해를 맞아 소원을 함께 나누는 콘셉트로 ‘뉴이어 위시’(New Year Wish) 도넛 4종을 출시했다.

‘리치 푸른뱀’ ‘복주머니’ ‘럭키 클로버’ ‘웰컴 2025’ 총 4종으로 행운을 상징하는 심볼을 적용했으며 고객 선호도가 높은 원재료를 활용해 새해의 희망찬 분위기를 도넛에 표현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부담 덜고 혜택 늘리고... 새해 물가 잡아라 NS홈쇼핑, ‘푸른뱀 골드바’ 경품 등 이벤트

유통업계, 새해 맞아 물가안정 나서 홈플러스 빅데이터 활용 알뜰 장보기 이마트 ‘고래잇’ 새해 대규모 할인행사 롯데마트 PB상품 할인·공구할딜 등

유통업계가 새해를 맞아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물가 상승 우려에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고 매출 상승을 노리고자 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12월 소비자물가지수 전월 대비 0.4%, 전년동월대비 1.9% 각각 상승했다. 이에 마트들은 새해맞이 물가 안정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전개하고 나섰다.

홈플러스는 소비자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 AI 물가안정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이달 2일부터 8일까지 올해 첫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AI 물가안정 프로젝트’는 홈플러스의 인공지능(AI) 기술과 구매 빅데이터

를 활용해 소비자들에게 최적의 상품을 제안하고 가격을 낮추는 물가안정 캠페인이다. ▲AI 가격혁명 ▲물가안정 365 ▲홈플러스 단독 상품 등으로 구성됐다.

홈플러스 김상진 트레이드마케팅총괄은 “그간 진행해 온 각종 물가안정 노력들을 하나로 묶고, 빅데이터를 통해 더욱 치밀하게 상품, 가격, 혜택을 기획해 합리적인 장보기 경험을 선사하고자 한다”라며 “AI 물가안정 프로젝트를 통해 답을수록 남는 장보기를 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마트 역시 새해맞이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물가 안정 행사 ‘고래잇 페스타’를 진행한다.

‘고래잇 페스타’는 이마트가 2025년 새롭게 선보이는 대규모 할인 행사다. ‘고래잇’은 ‘훌륭한(Great)’과 ‘아이템(Item)’을 결합한 표현으로, 이마트는 행사 기간 동안 특별히 선정된 14종의 ‘고래잇템’을 최대 반값에 제공한다.

특히, 이달 2일까지는 ‘브랜드 한우 전품목’을, 3일과 4일에는 ‘국내산 삼겹살·목심’을 행사카드 전액 결제 고객을 대상으로 50% 할인가에 제공한다.

롯데마트·슈퍼도 2025년 신년 맞이 물가잡기 캠페인 ‘더 핫’을 진행한다. ‘더 핫’은 ‘이번주 핫프라이스’ ‘이달의 핫 PB’ ‘공구할딜’ 세 가지 카테고리 구성됐다.

특히, 인기 상품을 선보이는 ‘이번주 핫프라이스’ 코너 상품을 매주 1개에서 매주 3개 내외로 늘려 운영한다. 오프라인 매장 전용 멤버십 서비스인 ‘롯데마트GO’ 애플리케이션 특가 서비스도 확대한다. ‘이달의 핫 PB’ 코너에서는 ‘요리하다’와 ‘오늘좋은’ 등 자체 브랜드 상품(PB)을 한 달간 8개 내외로 선정해 선보인다. 롯데마트와 롯데슈퍼가 파트너사와 협업해 단독으로 기획 제작한 ‘공구할딜’ 상품은 한 달간 연중 최저가로 고객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1일부터 ‘을사년 복 받아웃’ 프로모션

NS홈쇼핑이 NS몰 모바일앱에서 2025년 새해를 맞아 ‘을사년 복 받아웃’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골드바, 적립금, 할인쿠폰 등 다양한 혜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어 각각의 이벤트별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먼저, ‘푸른 뱀 골드바 18.75g’을 제공하는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1월 1일부터 1월 4일까지 진행하며 푸시 수신 동의 후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단 한 명에게 행운의 기회가 주어진다. 고객은 ID당 하루 한 번씩 응모할 수 있으며, 응모 횟수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같은 기간 동안 방송상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5000원 적립금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TV홈쇼핑과 NS샵플러스(T커머스) 방송상품을 모바일로 구매 후 이벤트 페이지에서 적립금 신청을 완료한 고객은 ID당 하루 한 번 5000원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프로모션 기간 동안 이벤트 페이지에서 매일 다운로드 가능한 5% 모바일 할인 쿠폰도 제공한다. ID당 하루 한 번 다운로드 및 사용이 가능하며, 최대 1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1월 1일부터 1월 12일까지는 100% 당첨 확률의 ‘웃놀이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참여 고객은 푸시 수신 동의 후 이벤트 페이지에서 웃놀이를 통해 골드바 1g, 식용유 세트, 후라이팬 세트 등 다양한 실물 경품과 적립금, 쿠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원선 기자

CJ푸드빌, 국내 넘어 해외서도 인재 육성

인도네시아 현지 학생 16명 선발 베이커리 전문가로 육성, 채용도

CJ푸드빌이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을 확대하며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CJ푸드빌은 ▲청년채용 ▲양성평등 ▲장애인 고용 확대 등 사회(S)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ESG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청년채용의 경우 국내를 넘어 해외로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며 고객이 신뢰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

고 있다고 1일 밝혔다.

CJ푸드빌은 지난해 9월 베이커리 전문가를 꿈꾸는 인도네시아 현지 학생 16명을 선발하여 청년 채용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국내에서 운영중인 다양한 산학협력 채용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해외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선발된 산학계 고교 학생들은 약 3개월간 인도네시아의 푸레쥬르 매장에서 점포 실습 및 인턴십 기회를 거치며 평가를 통해 최종 14명이 직원으로 채용됐다. 이들은 앞으로 인도네시아의 푸

레쥬르 매장에서 베이커리 제품을 생산하고 매장 스태프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인도네시아에서의 산학협력 채용 연계 프로그램은 CJ푸드빌이 지난 2022년부터 진행한 자카르타 기술국 공립고등학교 SMKN27과의 ‘푸레쥬르 베이킹 드림스’ 업무협약의 범위를 확장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제과제빵 관련 기술 습득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해왔다. CJ푸드빌의 활동은 푸레쥬르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프리미엄 No.1 베이커리로 자리하며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원선 기자

세븐일레븐-카브루, 명화 담은 하이볼 선택

앙리 마티스 명화 패키지로 분위기

세븐일레븐과 카브루(KABREW)가 새해를 맞아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앙리 마티스 명화를 제품명과 패키지에 담은 프랑스산 리얼 와인인 담긴 ‘와인 하이볼 2종(사진)’을 선보였다.

와인 하이볼은 ‘카티아 레드 와인 하이볼’, ‘나디아 화이트 와인 하이볼’ 2종으로 출시되며 포도 알갱이가 들어 있어 단순히 마시는 즐거움을 넘어 씹는 재미까지 더했다. 500ml에 도수는 5도다.

앙리 마티스의 미니멀한 인물드로잉 시리즈가 그려진 제품들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감성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랑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믹솔로지’ 트렌드와 지



속해서 인기를 끌고 있는 ‘과일릭(과일+holic)’ 트렌드에도 주목해 와인 하이볼에 포도 알갱이를 추가했다. 포도 알갱이를 편하게 마실 수 있도록 풀 오픈 탭도 적용했다.

카브루의 와인 하이볼 2종은 카브루 브루어리에서 직접 양조한 원주를 베이스로 하고 프랑스 남부 론 지역의 중요 품종인 ‘그르나슈’와 ‘시라’를 블렌딩한 레드와인과 ‘콜롬바드’, ‘위니블랑’, ‘알리코페’를 적절히 블렌딩한 화이트 와인을 원료로 사용해 깊고 풍부한 맛과 청량감을 함께 맞출 수 있다.

/신원선 기자

일산차병원, 새해 첫 아기 탄생... “대한민국에 희망 퍼지길”

당굴이, 꼬물이, 니케 3명 동시 탄생 “새벽까지 애써준 의료진에게 감사”

2025년 1월 1일 0시 차 의과대학교 일산차병원에서 새해 첫아기 3명이 동시에 탄생했다.

엄마 구슬기(35세)씨와 아빠 강우석(41세)씨 사이에서 태어난 남아 당굴이(태명·3.29kg), 엄마 구라겸(27세)씨와 아빠 이효영(38세)씨 사이에서 태어난 남아 꼬물이(태명·3.12kg), 엄마 이승현(33세)씨와 아빠 박준수(36세)씨 사이에서 태어난 남아 니케(태명·3.1kg)가 힘찬 울음소리로 새해 시작을 알렸다.

당굴이 엄마 구슬기씨는 2년여간



새해 첫날 일산차병원에서 태어난 아기를 간호사들이 안고 아기 아빠 강우석, 이효영, 박준수 씨 (뒷줄 오른쪽부터)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난임 치료를 받던 중자연임신에 성공해 출산했다. 남편 강우석씨는 “결혼한 지 10년째 되는 해에 당굴이가 새

해 첫아기로 태어나서 더욱 특별하다”며 “앞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아이로 잘 키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꼬물이 엄마 구라겸씨와 아빠 이효영씨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주면 좋겠다”며 “바르고 건실하게 키우겠다”고 말했다.

니케 엄마 이승현씨와 아빠 박준수씨는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게 도와준 가족과 새벽까지 애써준 의료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일산차병원 산부인과 임의혁 교수는 “1월 1일 0시, 3명의 산모가 건강하게 3명의 아기를 출산했다”며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이 대한민국에 새 희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노스페이스 애슬리트팀, 남극점 도달

영원아웃도어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가 자사의 애슬리트팀 김영미 대장이 남극점 도달에 성공했다고 1일 밝혔다. 김 대장은 이번 시즌 전 세계 탐험가들 중 가장 먼저 남극점에 도달했으며, 본인의 두 번째 ‘남극점 무모급 무지령 도달’ 목표를 달성했다.

/노스페이스



남양유업, 지역사회 복지시설 후원

남양유업이 전국 사업장 임직원과 함께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자사 제품을 후원했다. 이번 활동에는 전국 15개 사업장의 임직원이 참여해 뜻깊은 나눔을 실천했다. 남양유업이 생산한 우유, 두유, 음료 등 다양한 제품은 각 사업장 인근의 한부모가족시설과 노인복지시설 등 약 30개 시설에 전달됐다.

/남양유업



승실대-누코드, 산학협력 강화 MOU

승실대학교는 지난달 11일 승실대 베디홀 4층 회의실에서 저전력 통신모듈 제조기업 누코드(Nocode)와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학생들의 인턴십 및 취업 지원과 함께 대학과 산업체 간의 교육·연구자원 공유를 통한 상호 발전을 목표로 한다.

/승실대

중기부, ‘소상공인 365’ 정식 서비스 중진공 “中企 정책자금 신청하세요”

빅데이터 상권분석 등 지원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데이터 기반 경영지원 플랫폼인 ‘소상공인 365’가 시범운영을 마치고 2일 오전 9시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지원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 365는 2006년부터 운영해온 ‘상권정보시스템’을 한층 더 고도화한 플랫폼으로, 64개의 공공 및 민간 데이터를 수집, 22종으로 융합해 데이터의 품질과 범위를 대폭 개선했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 상권분석 ▲내 가게 경영진단 ▲상권·시장 핫트렌드 ▲정책정보 올라이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의 데이터 기반 창업·경영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365에 담긴 ‘빅데이터 상권분석’은 과밀창업을 방지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로, 기존 상권정보시스템에서 사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상권분석 서비스를 더욱 강화했다. 입지평가와 배달 정보 분석 리포트를 추가해 사업장 입지 및 업종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따라하기’ 기능을 새롭게 도입해 디지털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도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내 가게 경영진단’은 매출액, 고객 관심도 등을 바탕으로 개별 사업장의 경쟁력, 성장전망, 생존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시간대별 인기 메뉴, 유동인구 등 소상공인의 경영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상권·시장 핫트렌드’는 직장인구가 많은 회식상권, 배달 매출이 높은 배달상권 등 특정 고객층 및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핫플레이스 상권정보를 제공해 창업 아이템과 연계한 입지 선택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김승호 기자 bada@

혁신성장 지원, 글로벌화 등 5.1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에 따라 2일부터 정책자금을 본격 접수한다.

1일 중진공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점 지원 방향은 ▲혁신성장 지원 및 글로벌화 촉진 ▲성장 사다리 구축을 통한 역동경제 회복 ▲경영회복과 안정화 지원 ▲정책자금 리스크 저감 및 지원서비스 개선 등 4가지다.

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5조1300억원으로 반도체 등 혁신성장분야에 46% 이상, 현장 개선 및 제조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자금에 40%이상을 각각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경영 환경에서 수출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을 전년 대비 1931억원 확대해 3825억원을 공급한다. 해외 현지법인을 운영하거나 설립하는 국내 중소기업을 위해 600억원 규모의 자금도 새로 편성해 지원한다.

2025년 정책자금 신청 희망기업은 중진공 누리집이나 지역본(지)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서울과 지방 소재 기업은 2일부터 3일까지, 인천·경기 소재 기업은 6일부터 7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홍은경 교수, 대한내분비학회 이사장 취임

〈한림대동탄성심병원〉

한림대학교의료원은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의 홍은경 내분비내과 교수(사진)가 ‘제35대 대한내분비학회 이사장’에 취임한다고 1일 밝혔다. 임기는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대한내분비학회는 지난 1982년 설립된 후 내분비 호르몬 및 질환에 대한 연구와 학술활동을 40년 넘게 펼쳐며 의학 발전과 건강 증진에 공헌하고 있다.

홍 신임 대한내분비학회 이사장은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에서 내분비



당뇨갑상선센터장, 내분비내과 분과장, 내과 과장 등을 역임해 전문 역량을 갖춰왔다.

홍 신임 이사장은 “현대인의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해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골다공증을 비롯한 각종 성인병으로 일컫는 내분비 대사질환의 발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대한내분비학회와 함께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향후 국제적으로 내분비 분야를 선도하는 학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홈쇼핑 ‘지역사회공헌 기관’ 선정

홈쇼핑이 ‘2024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4년 연속 인정 기관으로 선정됐다.

1일 홈쇼핑에 따르면 중소기업과의 상생활동, 친환경 사업,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부,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운영, 정기적인 자원봉사 활동, 윤리경영 실천 등 다양한 활동을 인정받아 4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김승호 기자

환경부 이달 멸종위기종 ‘구렁이’

환경부는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1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 구렁이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구렁이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파충류 중 가장 큰 대형종으로 몸길이는 1~2m 정도이며 등의 색깔이 검은색, 암갈색, 황갈색 등 다양하며 배 부분은 황백색, 회백색이나 흑갈색 반점이 흩어져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김대환 기자 kdh@

기보, ‘SDGBI’ 국내 최우수그룹 선정

〈지속가능개발목표경영지수〉

기술보증기금이 UN SDGs협회가 주관하는 ‘2024년 지속가능개발목표경영지수(SDGBI)’ 발표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국내 최우수그룹으로 선정됐다.

1일 기보에 따르면 UN SDGs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

기관으로, 2016년부터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기반의 글로벌 지속가능경영지수인 SDGBI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기보는 중소·벤처기업의 ESG경영 지원 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처음으로 SDGBI 최우수그룹으로 선정됐다.

/김승호 기자

인사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부산지사 주재기자 △본부장 조한성
- ◆지오엘리먼트 ◇승진 △이영종(연구소장) △장명진(영업총괄) △송현우(생산총괄) △김재후(이상 상무) △허지희 △이희준 △진기중(이상 상무보)
- ◆지오어플라이언스 ◇승진 △각자대표이

사 김대현(반도체사업부) △이재순(가전사업부)

부음

▲정기용씨 별세, 주희석(메디톡스 부사장 겸 뉴메코 대표이사)씨 장인상, 정미경씨 부친상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3일, 장지 지하연 분당. 02-2258-5940

오늘의 날씨

1월 2일 (木) 음력 : 12월 3일

수도권 날씨 -3 ~ 5℃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7/4, 동두천 -6/4, 가평 -7/5, 파주 -8/4, 서울 -3/5, 양평 -5/5, 인천 -2/4, 수원 -2/5, 용인 -2/5, 평택 -4/5

백령도 0/3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2025년, 어느 해보다 '희망'이 절실하다



윤 위 중 의
잠시 쉼표

밝고 희망차게 시작해야 할 새해를 올해처럼 무겁고 비장하게 시작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청색을 상징하는 을(乙)과 뱀을 의미하는 사(巳)가 합쳐진 '푸른 뱀'의 해, 2025년 을사년(乙巳年)이 경기침체, 정치적 분열, 의정 갈등, 양극화 심화, 환경악화 등의 키워드와 함께 시작됐다. 더군다나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에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마음은 더 침울하다.

그래도 2025년 새해의 해는 힘차게 떠올랐다. 과거를 잊으면 안 되지만 과거에 매몰되면 미래는 없다는 각오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보다 국정 불안정 해소다. 정치권의 갈등이 불러온 국정 불안정은 행정·외교·국방·산업 등으로 일파만파 파장이 커진 상황이다. 국가신인도 하락은 환율과 국제 신뢰도뿐 아니라 기업들의 경쟁력까지 떨어뜨리고 있다.

가뜩이나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입

장에서 원화 가치 하락과 신용등급 하락은 나라 전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이런 원인을 제곡한 정치권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협치를 펼쳐야 한다.

민생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조속한 집행도 필요하다. 이 역시 정치권이 재정 당국과 협의해 신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여야정 국정협약체제를 가동해서라도 조속한 추경 집행을 통해 민생에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

특히 추경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조치이기 때문에 정치적 다툼과 추경을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 이는 우리 풀뿌리 경제를 망치는 자해행위나 다름 없다.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국회의 지원도 시급하다. 반도체나 인공지능(AI), 첨단로봇 등 21세기형 지식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를 풀고 연구기관 등을 활용한 각종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 우리 미래는 이들 첨단산업이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갈등 해소 문제는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빈부갈등, 세대갈등, 젠더갈등, 지역갈등 등 사회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는 것에 귀 기울여야 한다.

외교·국방분야에서는 정부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당장, 이달 20일에는 미국의 제

47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식이 예정돼 있다. 이번에 2기를 맞는 트럼프 행정부는 외교·국방뿐 아니라 산업 측면에서도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국방과 수출을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어떤 관계를 맺을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다. 지금 관가는 아노미 상태에서 누구도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행정부의 업무기강을 세울 리더십이 필요하다.

특히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방 분야는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다. 북한의 움직임이 조용한 게 그나마 다행이지만 비상계엄에 연루된 주요 군 지휘관들이 잇따라 수사대상에 오르거나 구속돼 지휘계통이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를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한다.

지구온난화 이슈도 외면할 수 없는 과제다. 지난해는 우리나라의 연간 평균 기온이 14.5도로, 날씨 관측 사상 가장 더운 해였다고 한다. 이런 추세는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문제를 등한시하면 우리의 미래는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다.

결국, 모든 사안의 결론은 정치권의 리더십으로 향한다. 국정 갈등이 하루 빨리 끝나 2025년이 전화위복의 희망찬 해가 되길 기원해본다. /편집국장 yhj@metroseoul.co.kr

의자 위 고양이, 광장의 사람들



김 서 현
(산부부)

을사년 새해, 어슴프레 해가 밝아오는 때 서울 흥제동 개미마을을 산책하고 있더니 멀리 버스 정류장 의자에 고양이 세 마리가 웅기쭈렁 앉아있었다. 며칠 전 어머니가 집 앞 버스 정류장 의자가 온열의자로 바뀌었다 말씀하셨던 일이 생각났다. 어머니는 마침 산이라 날이 너무 추운 데 온열 의자라도 있으니 고양이들이 좀 낫지 않겠냐고 했다. 그런데 웬 날씨가 오더니 고양이들을 쫓아냈다. 앉으려 쫓아냈나 했더니 남자는 그냥 의자를 손으로 스스닥근가버렸다. 의자에 앉을 '사람'을 위해서였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국회의원의 표결이 있던 날, 기자는 광화문의 탄핵 지지 집회와 여의도의 탄핵 찬성 집회를 모두 갔다. 광화문 역에 내리기 무섭게 "여러분은 대한민국 영웅들입니다!" 라고 외치는 남자가 있었다. 광장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군중이 모여 찬송가를 부르고 탄핵 지지를 외치고 있었다. 성조기와 태극기가 같이 휘날리는 풍경 속, 옆에 서있던 또래 여성이 내게 핫팩을 건넸다. "춥죠? 우리 같이 힘을 내봐요."

여의도 역으로 갔을 땐 국회의사당 지붕조차 보지 못한 채 인파에 휩쓸렸다. 반짝이는 갖가지 응원봉과 유머러스한 깃발들이 마치 축제라도 벌이듯 했다. 빈손이라 대중 주목을 쥐고 흔들렸더니 옆 자리 남자가 자신의 응원봉을 주더니 "누나 건네 가지세요!" 라고 했다. 탄핵이 확정 되

자 사람들은 얼싸안고 이름 모를 서로와 손뼉을 쳤다. 광화문에서 내게 핫팩을 준 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고양이와 의자에 대한 시선이 다르듯, 탄핵이라는 사건도 각자의 입장에서 해석된다. 개미마을 온열의자를 두고 어머니는 고양이들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작은 쉼터로 생각했고, 또 다른 사람은 사람이 쉬어야 할 곳에 동물이 앉아 더럽혀서는 안 될 의자로 생각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싸고도 사람들의 생각이 부딪혔다. 온열의자 하나 조차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듯,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사건도 각자의 시선에서 이해된다. 그러나 결국 서로 다른 생각 속에서도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한다. 다른 생각 속에서 오가는 서로를 위한 선의를 기억하며. /seoh@

오늘의 운세 1월 2일 (음 12월 3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다. **48년생** 근거 없는 칭찬은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 **60년생** 밭 빠진 독에 물 붓어도 소용이 없다. **72년생** 내 맘을 알아주는 친구를 만난다. **84년생**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니 희망을 갖자.
- 37년생** 꾸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으니 부단한 노력이 필요. **49년생** 외부활동을 자제. **61년생**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다. **73년생** 삶은 계속되고 꿈꿀 시간은 아직 많다. **85년생** 고인은 건강한 사람도 환자를 만든다고 했다.
- 38년생** 얼룩진 옷을 바라만 보지 말고 벗어서 세탁. **50년생** 노력 없이는 한 발자국의 진보도 없다. **62년생** 좋은 것이 좋은 것을 부른다. **74년생** 계획에 없던 지출이 생긴다. **86년생** 맑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니 자신에게도 신중하게.
- 39년생** 여의주를 얻은 격이니 성공적으로 하던 일을 마무리. **51년생** 한 번을 참으면 열흘이 편하다. **63년생** 너무 참으면 병이 된다. **75년생** 과거의 눈높이를 낮추면 직장을 빠르게 구한다. **87년생** 게으른 예술가가 만든 명작은 없다.
- 40년생** 내키지 않아도 웃어야 하는 하루이니 서글프다. **52년생** 자존감을 나를 지켜주는 힘. **64년생** 바라는 일이 없으니 되는 일도 없다. **76년생** 계획을 세워도 실천을 해야 희망이 있게 마련. **88년생** 소피와의 거래가 순조롭게 진행.
- 41년생** 눈앞의 실수를 챙기다 보면 큰 이익을 놓치게 된다. **53년생** 고집을 세우면 자식도 외면한다. **65년생** 눈이 빠지게 고대하나 아직은 글썽. **77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평화로운 날. **89년생** 위계양의 원인은 마음의 병에서 시작.
- 42년생**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좌우하니 깊이 생각하고 행동. **54년생** 어느 길로 가도 목적지에 도착하는 행운의 날. **66년생** 열정과 힘이 넘치는 하루. **78년생** 자신의 잘못이지 상대의 탓이 아닐 터인데. **90년생** 매사가 귀찮고 심드렁하다.
- 43년생** 마른논에 물들어 옷이 해결. **55년생** 실사구시(實事求是)가 기본이다. **67년생** 잠시 멈춰 서서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자. **79년생** 망각은 신이 주신 선물이니 가는 사람 잊자. **91년생** 인생은 새옹지마니 일회일비하지 마라.
- 44년생** 호감이 가는 이성의 유혹이 있다면 어찌할 것인가. **56년생**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 **68년생** 몸이 멀리 가니 마음이 멀어진다. **80년생**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면 일이 풀린다. **92년생** 공돌인 탐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법.
- 45년생** 조상님께 온정신성(溫?農)해야 할 것. **57년생** 가족의 화목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 **69년생** 포기도 용기가 필요하다. **81년생** 두려움이 기도를 거치면 용기로 변한다. **93년생** 삶의 지혜를 살아가면서 배운다.
- 46년생** 행복도 불행도 항상 일어나지 않는다. **58년생**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조심. **70년생** 모심으리갈 때는 장화를 신어야 한다. **82년생** 간절히 원하면서 실천하면 천지가 도와주게 되는 삶. **94년생**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 했다.
- 47년생** 명석이 깔렸으니 모든 역량을 발휘하자. **59년생**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하다. **71년생** 괴로운 시련처럼 보이나 좋은 일이 있다. **83년생** 길 떠나려는데 폭풍우가 치니 잠시 지체. **95년생** 지는 앞을 보면 자신의 신세 같아서 서글프다.



김상회의四季 신년 각오

새롭다는 말은 듣기만 해도 신선하다. 서로 소회는 달라도 새로운 해에 거는 기대는 분명 희망일 것이다.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나은 것이라는 희망, 마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명화의 마지막 장면처럼 뒤늦게 레트에 대한 감정이 사랑이었음을 깨달으며 "그래,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거야!"라며 다시 일어설 것을 기대하게 하는 장면처럼 말이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설사 뜻대로 되지 않아 자괴감이 들지라도 자기 최면을 걸 필요가 있다. 스스로 만점은 줄 수 없을지라도 "그래도 이만하면 잘했어. 하지만 내일은 더 잘할거야!"라는 각오를 되새긴다면 분명 마음은 긍정의 에너지로 힘을 얻을 것이다. 사실이 그렇다. 영어로 1월은 재뉴어리(January)다. 이 재뉴어리의 어원은 그리스·로마신화의 야누스(Janus)신에서 나온 단어다. 야누스는 얼굴의 반은 과거를 보고 나머지 반쪽은 미래를 본다고 하여 1월 재뉴어리의 어원이 되었다. 더불어 가는 해에 대해 아쉬움과 새해에 대한 기대를 나타낸다고 해석되기도 하지만, 이 말은 과거와 미래를 함께 하는 현재를 나타내기도 한다. 어제가 오늘이 되고 오늘이 내일이 되는 것이니, 오늘 현재에 집중하고 할 바를 다 한다면 과거나 미래가 바로 오늘 이 순간에 완성되는 것 아니겠는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했다. 신년은 음력 정월 초하루인 구정과는 한 달 채 못 미치는 간격으로 을사년 신년을 맞게 되는 셈이다. 을사년은 '푸른 뱀' 천간인 을목(乙木)은 옆으로 뻗는 가지로서 관목에 해당한다. 지지인 사(巳)는 양화(陽火)로서 불기운인데, 천간의 관목을 만나 의지가 타오름이나 지나치면 관목들을 홀라당 다 태워버릴 수가 있다. 관심 가는 일을 추구하되 스스로를 태워버리지 않도록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필요한 시간이 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58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88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학습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로노스와 컬러풀한 증가비율
http://www.argo9.com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로노스와 컬러풀한 증가비율
http://www.argo9.com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2	4	1			7	3		
			2		9	1		6
	6	8	4	3				7 9
			1			4		
3	4			1	8	6	9	
9		2	5	3				
	8	9			4	3	2	

1	8		9		2	3	5	
							1	
		5		3	1			9
	2	3	4	5				9
9				1	7	6	2	
	3		8	2		4		
	6							
5	4	2		7		9	8	

할인도서

9	2	8	7	4	9	6	8	1
1	9	8	6	4	9	2	4	6
2	6	9	8	1	4	9	7	8
4	8	6	9	2	6	9	1	7
8	9	7	2	9	8	1	6	4
7	1	2	4	8	6	8	9	9
6	4	9	1	8	7	8	9	2
9	7	1	6	9	2	4	8	8
8	8	4	9	6	1	7	4	2

9	8	6	8	4	1	2	7	9
2	4	8	9	7	6	1	9	8
1	9	7	6	2	8	9	8	4
8	2	9	4	1	9	7	8	6
4	7	1	2	8	9	6	9	8
6	9	4	8	9	7	8	2	1
7	6	8	1	8	2	9	4	9
8	1	9	7	9	8	4	6	2
9	8	2	9	6	4	8	1	7



허리띠 조르는 저축은행 키워드 '백절불굴' 너



Life

XR·스마트홈 등 시에 집중 시장선점 '사할' L2



2억 맞벌이도 신생아 특례 혜택... 고교학점제 도입

새해에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기존 부부 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3년간 추가 완화된다. 금융회사에 예금을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24년만에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된다. 전국의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대학처럼 자신이 원하는 과목으로 시간표를 구성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과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다가오는 새해를 맞아 각 분야에서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변화는 무엇일까. 금융, 교육, 노동, 복지 등 주목해야 할 개편 사항들을 살펴본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



세제·금융

예금 보호 한도 1억까지 상향

▲디지털화폐 시범운영=한국은행은 현금 사용의 불편함을 줄이고,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시범 운영을 본격화한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요건 완화=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도 기존 부부 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3년간 추가로 완화된다.

▲금융 소비자 보호법 강화=대출 상품 설명 의무 강화, 불완전 판매 방지, 금융 사고 발생 시 보상 체계 개선 등 금융 소비자 보호법이 강화된다.

▲상속세 개편=최고세율이 30억원을 초과하면 50%에서 10억원을 초과하면 40%로 하향 조정된다.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 제공=1월에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반도체설비투자를 원하는 기업에게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2월부터 신용카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별로 0.05~0.1%포인트 인하된다.

▲오픈뱅킹 대상 확대=오픈뱅킹 이용자를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해, 법인계좌도 하나의 은행에서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보호대상 예금액 상향=금융회사에 예금을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24년만에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된다.

▲책무구조도 시행=금융지주·은행부터 금융회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시행된다.

▲은행 LCR규제비율 변경=1월부터 은행 LCR규제비율을 100%로 정상화해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강화한다.



교육·보육·가족

무상교육 속도... 75% 국가장학금

▲고교학점제 도입=전국의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대학처럼 자신이 원하는 과목으로 시간표를 구성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도입=그간 정부가 직접 대학에 재정을 집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재정 지원 권한이 광역시도에 이양된다. 재정 규모는 2조원에 달한다.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과 대학이 처한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체계다.

▲유보통합 시작=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청소년 SNS 사용 제한=청소년의 인스타그램 사용이 제한된다. 18세 미만 사용자의 계정은 자동으로 비공개로 전환되며, 메시지는 팔로우한 사람이나 기존 팔로워에게서만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확대=대학교 국가장학금의 지원대상 소득 기준을 확대해 전체 대학생 50%만 받던 국가장학금을 75%가 받게 된다. 근로장학금 대상은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늘렸다.



보건·복지·고용

최저임금 1만30원... 육아지원 확대

▲최저임금 시간당 1만30원=2025년 최종 확정된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이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시간당 1만원을 넘게 됐다.

▲육아휴직 급여상한 인상=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에 체불사업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사 입찰 시 감점 등 불이익을 통해 국가 지원을 제한한다.

▲'6가 혼합백신' 영아 무료 접종='5가 혼합백신'에 B형 간염까지 예방하는 '6가 혼합백신'의 영아 무료 접종이 시작, 예방접종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노인 기본연금 인상=노인 기본연금이 월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인상된다. 75세 이상의 고령자는 추가적으로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인상=급여별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인 6.42% 인상돼 4인 가구 기준으로 609만7773원으로 결정됐다.

▲'희망저축' 정부지원 상향=근로 중인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희망저축계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필수가임력 검사비 지원 확대=필수가임력 검사비 지원대상이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

숙취해소제 광고 시 실증 의무화

▲9급 공무원 시험 개편=국어와 영어 과목의 출제 방식이 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 중심으로 변경된다.

▲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미숙아 출산휴가는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도용시 사실 확인 업주 처벌 면제=24시 찜질방과 숙박업소에서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도용해 나이를 속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들인 경우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 영업자의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김호중 사례 차단=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가 6월부터 금지된다.

▲휴·폐업 시 이용자에게 사전 통보=헬스장 등 체육 시설업자는 4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그 예정일 14일 전까지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회원과 일반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시행=소비자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개인별 생활습관 건강상태 등에 따라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수 있다.

▲숙취해소 표시·광고, 인체적용 실증의무 시행=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춰야 한다.



환경·기상

재해위험요인 정비 사업 확대

▲스마트 제어 충전기 확충=현재 2만3000기에 달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9만5000기까지 대폭 확충한다.

▲풍수해 종합정비 사업 확대=재해위험요인 일괄 정비를 위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을 18개소에서 35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2025년 새해 모두의 마음속에도 빛나는 해가 뜨길 바랍니다

이해인 햇빛은 12월 22일에서

행복합니다

미리 미리

햇빛으로 웃어줄 것이라

그들도 내게

사람들을 만나면

마음을 씻고

손을 씻고

얼굴을 씻고

햇빛으로

손 흔드는 아침

잔뜩 설레는 마음으로

떠오르는 해를 향해

바다 위로

여객기 사고로 희생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